

12. 2017 + 0
20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

2017





2월의 테마토크

‘청년’ 혹은 ‘예술가’를 위하여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며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혹은 결과물을 전제로 한 창작지원 정책이 중심이다 보니 장기적 관점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청년’과 ‘예술가’의 기준을 각각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호 테마토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청년예술가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사람과 사람 시인 고은

지난 1월 11일 고은 시인이 이탈리아 로마재단이 수여하는 국제 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은 시인은 2005년 노르웨이 비에른손 훈장을 시작으로 2008년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2014년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황금화환상과 이탈리아 노르드수드상 등 해외에서 문학상을 이미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팔순을 훌쩍 넘긴, 그러나 세계 문단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은 시인을 김형수 시인이 만났다.



진실 혹은 대담 기획토론 ‘문화담론 순환선’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는 2016년 사회적 예술, 예술가, 지역화 전략, 생활문화 4개 소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문화담론 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주요 문화정책 의제와 관련된 문화자원 밀집지역(창동, 은평 숲속극장, 성수동, 광화문)을 순환하며 4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활동 방향을 잡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제

2016년 달군 서울문화재단 10대 키워드

2016년, 문화예술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특히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불어온 날 선 바람은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그 속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contents

- 02 발행인의 말 | 주철환의 더다이즘, 다섯 번째
04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김운섭

테마 토크

‘청년’ 혹은 ‘예술가’를 위하여

- 08 정책(聽策)을 너머 창책(創策)으로 | 청년을 만나, 들어주자, 직접 하게 하자
10 공공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 문턱 낮춘 공공지원사업, 안정적 지원은 과제
14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이 모이는 서울의 공간 | 여기, 청년의 아지트
18 청년예술가 3인에게 듣다 | 젊은 예술을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을 꿈꾸며

사람과 사람

- 22 시인 고은 | 모국어의 영토 너머로 확장되는 시인의 영혼
28 공연기획자 조하나, 나희경, 정하린 | 생존이 아닌, 살아 있는 기획을 위하여

- 32 진실 혹은 대담 | 기획토론 ‘문화담론 순환선’
38 예술가의 밥그릇 | 레고 사진가 이제형
40 서울 할나 | 고은 시인의 시 〈눈길〉 중에서

이슈&토픽

- 42 쟁점 1 | 국공립미술관의 ‘블록버스터 전시’ 논란
44 쟁점 2 | 승인서적 부도를 통해 본 출판계 현실
46 화제 | 2016년 달군 서울문화재단 10대 키워드

- 52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 54 공간 | 경희대 앞 ‘문화공간 8번가’
56 공감 1 | 연극 〈남자총동〉과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58 공감 2 | 전시 〈장영혜중공업〉과 〈요세프 쿠델카〉
60 공감 3 | 시집 〈눈먼 자의 동쪽〉과 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

-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 소문과 정을 팔던 행상(行商)의 추억
66 서울 단상 | 영화 칼럼니스트 김정원의 만리동 추억
68 강상준의 썰(說) | ‘빛의 연금술사’ 신카이 마코토가 그려내는 그림
70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서양음악 중심으로 획일화한 세계 음악
72 서울 건축 읽기 | 서울공예박물관 크래프트 그라운드

- 74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김민수 작 〈은신〉

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2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gomgom@sfac.or.kr

이아림 ahrim@on-it.kr

객원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1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주철환의 더다이즘,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운 것을 그리다

겨울에 만난 아름다운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또래 젊은이보다 약간 더 내성적이거나 약간 더 외향적입니다.

먼저, 북서울미술관에서 만난 청년화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가 창작지원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기획전 개막일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는데 낮익은 초상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JTBC <뉴스룸> 진행자인 손석희 앵커였습니다(방송사 후배이자 개인적으로 저의 손아래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림 앞에서는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줍음 많은 미남 청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 등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그린 정도운 화가였습니다.

현직 교수인 그의 아버지는 저와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아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도록(圖錄)에 어머니가 쓴 글을 읽어보니 '도운이의 관심은 단순히 팬심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촛불집회에서 노래한 가수 이승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손석희와 이승환, 이 둘 사이엔 세월호의 노란 리본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직접 만나면 꼭 화가의 이야기를 전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만남을 주선하도록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예감하는 아빠의 표정은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 어울릴 만한 배경음악을 생각해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에 송창식이 곡을 붙인 '푸르른 날'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푸르른 어떤 날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인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또 하나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웃사촌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로 온 후 제일 가까운 이웃인 복지관 대표님과 직원들을 저희 회사로 초대했고 저희 또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명랑청년 하나가 바로 제 앞에 식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성시경 아저씨 맞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는 단박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성시경은 저보다 한참 어린(?)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안경과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활짝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랬더니 "처음처럼, 내게 오는 길, 거리에서, 넌 감동이었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다정하게 안녕히, 어디선가 언젠가..." 하며 성시경이 부른 노래 제목을 줄줄이 외우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양떼. 성시경도 양떼. 내 말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은 저도 양떼입니다.

줄지에 식탁은 '양들의 침묵'이 아니라 양들의 오순도순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박종오 관장님의 자상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세한 발달장애가 있는 직업적응훈련생인데 여기서 2년을 훈련한 후엔 복지관에서 직업을 알선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승욱이었습니다. 성시경을 만나면 꼭 승욱 씨 얘기를 전해줄 겁니다.



앞에 소개한 화가 청년도 처음엔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팀 작가육성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방과 후 그림 멘토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는 자신의 재능에 집중하게 해주고 가족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직장인 중고등학교 교사 시절 마지막 수업시간에 저는 제자들에게 노래 한 곡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사이먼 앤드 가펑클이 부른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흔히 '힘한 세상에 다리 되어'라고 번역하죠.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당신이 지치고 왜소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당신의 편에 서서 제가 그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시절이 험하고 친구가 안보일 때
제 몸을 높혀 거친 풍랑 위 다리가 될게요.**



우리는 그리운 것을 그리고,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미술과 음악은 가족과 친구를 연결해줍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살짝 다짐합니다. 감사와 행복이 밀물처럼 번져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주철환



〈순교자 Martyr-the Resurrection of Van Gogh〉
oil on canvas | 194×390cm | 2016

이달의 표지 작가 김운섭

표지작 〈Pilgrim series-Plateau〉을 포함한 최근 나의 작업은 〈순례자 시리즈(Pilgrim series)〉다. 전 지구적으로 광고와 사진 등 각종 이미지가 범람하는 가운데 이미지 생산자인 작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작가가기 이전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본 작품이다.

각종 공모전을 비롯해 수많은 경쟁을 거치며 소모되고 희석되는 나에 대한 치유의 의미도 지닌 〈순례자 시리즈〉는 창작자가 내세우는 개념, 방법론 등에 반해 풍경과 자연으로 돌아가 나를 숨기고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다른 이와 경쟁, 다른 이미지와의 경쟁을 피해 나 자신과 작가로서의 실존을 염두에 두고 ‘나무와 나’ ‘별과 나’ 같은 낭만적 소재들을 일부러 차용해 그린 작품들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하는 와중에 작가란 신앙의 숭고함을 품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례자 시리즈〉를 작업하기 시작했다.

나는 작품에서 순례자(pilgrim)로 상징된 작가를 다시 순교자(martyr)로 상징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반 고흐 같은 회화의 거장을 소재로 삼고 시인 아르튀르 랭보의 삶을 다룬 영화 〈토

탈 이클립스〉의 대사에서 차용한 〈이 세상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게 없어요(The World is Too Old, and There’s Nothing New)〉라는 구절을 차용해 2016년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로 나는 작품의 소재와 방법을 회화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표지작
〈Pilgrim series-Plateau〉
oil on canvas | 90×73cm | 2016

김운섭

2016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공주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금호창작스튜디오, 청주창작스튜디오, 경기창작스튜디오, 광주시립양산동스튜디오, 부산아트팩토리 등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 세상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게 없어요〉(갤러리조선, 서울, 2016)를 비롯한 8번의 개인전과 다수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글 김운섭



〈Pilgrim series-Desert〉
oil on canvas | 60×46cm | 2016





‘청년’ 혹은 ‘예술가’를 위하여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며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혹은 결과물을 전제로 한 창작지원 정책이 중심이다 보니
장기적 관점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청년’과 ‘예술가’의 기준을 각각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호 테마토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청년예술가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청책(聽策)을 너머 창책(創策)으로

청년을 믿자, 들어주자, 직접 하게 하자

청년정책은 청년들 스스로 짜도록 늘 절차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의를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청년들에게 적합하면서도 사회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제도를 직접 설계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가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 <2016 청년, 문화 예술 토론>에 진행자로 참여했다.
라운드 테이블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목소
리를 자유롭게 내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였다. 청년의 곁으로
다가가서 '듣는 자리'. 그때 답을 듣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던
지면서 시작했다. 그 질문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내고 싶
은가' 하고 되묻는 질문이었다. 청년정책이 청년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청년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할까.

가상으로라도 현실성 있는 청년제도를 스스로 짜서 발
표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까지 해보도록 하는 창조행위인
'창책(創策)'의 기회를 꾸준히 열어주는 건 어떤까? 청년 자
신을 위한 정책 설계를 해봐야, 비로소 청년이 사회 전체를
위해 정책을 짜는 상상력을 갖게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발
전한다. 그러자면 먼저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
러 집단을 돌아다니며 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지원사업
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더 폭넓게 정책을 개선해
청년의 여건이 바뀌는 효과까지 다뤄야 한다. 행정 시스템의
혁신 사항을 짚고 대안을 말해야 한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
면 청년이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고민을 해결하
려는 지점에 설 수 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실현가능
성까지 깊이 논의하는 장을 열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 스
스로 건의하는 채널까지 구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
다. 사회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사회가 청년을 성장동력이라고 본다면 이는 당연하다.
기존의 프레임을 깨고 청년들이 사회를 설계해도 세상은 혼
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 반대로, 창조의 질서가 시작된다. 어
느 시대에나 그랬다. 청년 스스로 하게 하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청년정책은 예술가에게 한정되지 않고 문화기획자에게 폭
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갖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종사하는 많은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가
산다.

청년을 39세 생물학적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위 선배 집단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0대에 이른 문화기획자, 예술
가들은 자신들의 현장 경험과 청년기에 아쉬웠던 점을 후배
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존재다. 40대가 30대에게 조언하고,
30대가 20대에게 기회를 주고, 20대가 10대를 키우면 놀라
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청년정책은 이처럼 청년들이 후배를
기르도록 함으로써 기성세대 선배와도 나눌 주제가 생기도
록 해주어야 한다. 40대에 다다른 현장의 청년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자신의 현장과 노동 경험이 분명한 그들의 힘을 보았다. 현장을 가진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보는 눈을 달리하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낡은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 지원액과 지원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의존성 높은 긴급 수혈을 하는 데 머문다. 정부는 예술가 지원사업, 고용 창출, 창업자의 수를 늘리는 등 실적에 관심이 많은 반면, 청년들은 생계를 넘어선 창작의 경험과 자유,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만드는 자들에 대한 존중과 격려, 큰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관심이 있다. 이 목소리에 충실한 정책을 짜려면 민간에서 열리는 모임에 나오는 청년 예술가, 문화기획자의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포럼을 짜기보다 청년 집단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녁 시간 살롱을 직접 열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의 사항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몇 개월간 청년들 스스로 '협하게함'이라는 개더링(개방적인 무리 짓기)을 해내고 청년의 어젠다, 문화 이슈, 사회문제 개선의 제안을 만들어냈다. 창의적인 일을 하

는 청년들의 소사이어티(유대와 교감의 장)를 만들면서도 스스로 실천하고 시민사회에 선언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뜻을 모아가고 있다.

결속하고 협업할 것, 끊임없이 '질문'할 것

지금은 청년 문화기획자에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능한 지속성을 짜주어야 할 때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보다 창의적인 청년들의 '생존력 확보'다. 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 제도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꾸고 실험하고 다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화 필요하다.

청년들이 그간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건의사항 반영과 꾸준한 대화 기회 마련만이 아니다.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주어, 실험 작업과 탐구 체험, 사회적 실천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획서를 짜서 지원받는 사전 지원보다는 좋은 사회적 실천을 해낸 청년을 찾아 상을 주는 사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참신한 프로젝트를 건의하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 우수한 것을 뽑아주는 제도로 동의와 결속 역시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청년들의 협업을 독려하는 경진대회와 보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을 돕는 '착한 예술', 세상의 문제를 밝히는 '나쁜 예술'을 청년들이 실천해내도록 말이다. 20년 후를 생각하는 청년의 모임을 일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선배들은 심시 일반 힘을 모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

말었다.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 답을 줄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좋은 선배란 도전할 만한 좋은 질문을 주는 사람 아닌가.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함께 해결하도록 말이다. 선배들이야말로 제각각 따로 놀지 않고 협업해 함께 후배들을 도울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 육성사업, 멘토링, 심사가 있을 때에나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실천을 돕기 힘들다. 과제는 청년들이 아니라 형식적 소통에 머물렀던 선배들에게 사실상 주어진 것이다.

수개월 동안 저녁시간에 청년들의 살롱에서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들었다.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밝힌다.

글
안영노
디디비 코리아 부사장

그림
손민정

공공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문턱 낮춘 공공지원사업, 안정적 지원은 과제

최근 1~2년 사이 문화예술계에도 '청년'을 내세운 공공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예술가를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수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유망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여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 정도였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예술가 대다수가 기성 예술가들과 경쟁해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창작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창업, 프로젝트 매칭 등 지원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갓 진출한 예비예술가들이 공공지원의 문턱을 넘어볼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특화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제시하는 '청년'의 범위는 보통 만 19세부터 만 35세 또는 만 39세다. 청년이라고 하기에 다소 많은 나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리 무리는 아닌 듯싶다.

예술가의 길로 이끄는 창작지원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비기너스(Beginners)프로젝트 중 '최초예술지원'사업이다. 비기너스 프로젝트는 연령 제한 없이 홍대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소액多컴'과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예술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2016년 시작한 '최초예술지원'은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순수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5세 이하 신진 예술가(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다. 시각, 연극, 무용, 음악, 다원, 전통 분야 창작활동 외에도 세미나, 워크숍 등의 사전 연구활동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양식이

없이 활동계획서를 자유롭게 만들어 제출하면 되고, 상금 방식으로 지급되어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한번 선정된 예술가는 해당 프로젝트가 끝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최초예술지원' 다음 단계인 '유망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공공의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선정자들은 임대아파트, 싱크홀 사고, 히키코모리 등 이 시대와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주제로 창작활동을 진행했다. 전시나 공연 외에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책자와 음원을 내고,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독립출판물 및 제작물 축제인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공개했다. 발표 장소도 사업의 주관처인 서교예술실험센터뿐 아니라 '개방회로' '800/40'과 같은 신생공간, 진짜 냉동창고 등 도심 곳곳을 활용해 선보였다. 최초예술지원을 통해 기존의 틀에 박힌 전시나 공연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보여준 것이다. 2016년에는 5월, 7월, 9월 3차례 공모를 진행해 각 18명(팀)씩 총 54명(팀)이 생애 처음으로 공공지원을 받았다. 2016년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2017년에는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문화재단의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매월 공모를 진행해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소규모 프로젝트다. 2015년 시작했으며 지원 대상에 맞춰 신청 양식과 진행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서 파일만 봐도 수십 가지 항목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업신청서와는 다르다. '바로 그 지원'에서 해보려는 당신의 작업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 옆에 넉넉한 빈 칸이 있고 아래에는 연락처만 적게 되어 있다. 심사도 전문가들이 모여 서류를 검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심사위원, 동료 예술가,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자원, 공간을 연결하고, 전문가의 리뷰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신청서 접수와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2개월 내에 이뤄진다.

대구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출신의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해 차세대 예술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를 통해 음악, 무용, 연극, 전통, 시각예술 등 5개 분야별로 2~3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만 35세 이하다. 매월 80만 원을 상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멘토링,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펠로십 지원제



도다. 한번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2017년에는 기존에 선정된 15명을 지속 지원해 공모가 없으며, 2018년에 다시 선발한다.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청년예술가들에게 활동할 기회를 주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청춘마이크'는 열정과 재능이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만 19~35세를 대상으로 학력, 이력, 수상 경력을 배제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예술가를 선정한다. 개인이나 소규모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연당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2016년에는 88팀(시즌1), 60팀(시즌2)이 선발되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가차역, 거리, 광장, 병원 로비 등 전국 각지의 공개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관객들을 만났다. 지난해 말 우수 청년예술가로 선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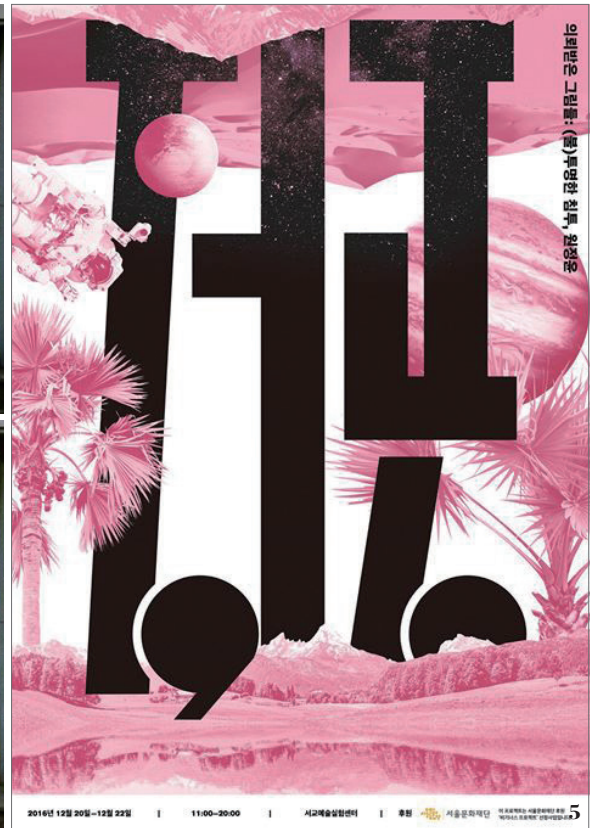
10팀은 '영 아티스트 어워드'를 통해 공식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지금까지 거리공연 아티스트들에게는 공연 실비를 지급하거나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청춘마이크'에서는 공연활동에 대한 보수를 정식으로 책정하고 지급했다. 2017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청년예술단은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과 사회적 일자리 경력을 쌓아 예술인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35세 예술인(1983~1998년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예술단체다. 50여 팀을 선정해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지정하고 창작활동비용과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단체별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8개월간 1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술단체는 이 비용으로 활동 실적에 따라 단원들에게 창작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개인에게 고정적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 방식은 아니다.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선발되면 기획, 연

1 인천문화재단의 '바로 그 지원'은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매월 공모를 진행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정동길에서 열린 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루미너리'의 공연.

3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사업의 프로젝트 발표 현장.



예비예술가를 위한 장학금 제도

예술가를 꿈꾸며 대학에 들어갔지만 졸업도 하기 전에 빚쟁이가 되어 예술가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 예술은 사치가 되어버린다. 이처럼 장학금이 절실한 예비예술가들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이 있다. 장학생에 선정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학기당 180만원의 생활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예체능 계열 학생에게는 꿀 같은 장학금이 아닐 수 없다. 신청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학과 3학년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기준은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3.5이상이다. 성적기준만을 충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 작년에는 2월 말에서 3월초에 신청을 받아 학교 추천, 서류심사, 심층면접의 단계를 거쳐 14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한국장학재단 관련 페이지 goo.gl/a7bzeh)

습, 발표(공연, 전시 등) 활동을 포함해 연 80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문화예술계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젊은 예술인을 찾는 공고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인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관할 부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다. 회화, 판화, 전시 디자인 등 시각예술을 전공한 청년에

술가와 소규모 상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예술가들은 상점 주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작업을 의논하고 상점의 입구, 셔터,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명함, 종이컵 등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예술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은 실비용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 4만 6,000원(식비 포함). 만 18~39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첫해인 2016년 사업에는 19명의 청년예술가와 31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15~19일에는 8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담아 전시회도 열었다. 2017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청년예술가들도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도전 지원

청년들이 창작활동을 넘어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자립을 모색하는 청년들

그렇다고 청년예술가들이 공공기관의 지원금과 지원사업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모여 작품 창작 과정과 작품에서 파생된 상품을 파는 장터를 열기도 하고,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 프로젝트 비용 모금에 나서기도 한다. 신생공간을 운영하는 젊은 예술가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별도로 하면서, 공간을 매개로 동료 예술가들과 느슨하게 연대하며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¹ 이에 따라 공공지원사업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영리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술가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추세다. 그 예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우리동네 아트페어'²의 지원을 받은 '더 스크랩(The Scrap)'이 있다. '더 스크랩'은 102팀이 작가로 참여해 작가별로 10점씩, 총 1020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인 새로운 타입의 전시·판매 플랫폼이다. 2016년 12월 27~29일, 단 3일간 열린 행사에 1,546명이 방문해 5,315장의 사진이 판매되었고, 판매 수익금은 참여 작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기획과 일련의 움직임은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청년예술가 대상의 지원사업이 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다. 창작보다는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되는 형태가 많아, 예술을 도구화하고 청년예술가들을 사업에 이용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업이라고 해도 정규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한 걸음을 떼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예술가 개인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해 재료비, 인쇄비 등 실비만 지원 항목으로 인정했지만, 예술가 개인의 인건비, 창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꼭 이뤄져야 할 일이다. 공공이 계속해서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청년예술가들이 '포기'가 아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는 사업도 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예컨대 프로젝트'는 청년예술가의 사회 진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주관한다. '예컨대'는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대화'의 줄임말. 가능성 있는 예술 분야 창업팀을 선발해 창업활동지원금, 홍보·마케팅, 전문가 컨설팅과 워크숍, 기업후속연계 등 초기 창업 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분야는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예술융합이며, 대학 재학 및 졸업 5년 이내의 청년예술가 3명 이상이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예술 전공자 60% 이상 필수). 2016년 사업은 7월 말에 신청을 받아 총 102팀이 응모했으며, 사업운영계획 PT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팀을 선발했다. 예술융합 분야가 4팀이고, 미술·영상·연극·전통예술 각 1팀이었다. 8개의 팀은 4개월간의 창업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3일 예술창업 쇼케이스 '청년예술가, 창업의 문을 열다'를 통해 그동안 개발한 사업 아이템과 콘텐츠를 공개했다. 4개월간 팀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1 신혜영(2016), 스스로 '움직이는' 미술가들, 한국언론정보학보(2016년 통권 76호), p192

2 청년작가(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중심의 아트페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총 7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 4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인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프로젝트의 작업.
- 5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원정운 작가의
전시 포스터.
- 6 예술경영지원센터
'우리 동네 아트페어'의
자원을 받은 '더
스크랩(The Scrap)'
(www.facebook.com/
thescrap).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김익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이 모이는 서울의 공간

여기, 청년의 아지트

서울시는 청년 지원 정책을 실행하며 청년 활동의 기반인 ‘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휴식도 놀이도 작업도 안정적인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공간의 확충과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 지원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서울 곳곳에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들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 산림동 골목에 새바람이 불다

지하철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사이 청계천 일대는 조명, 가구, 타일, 금속가공업체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 일대에 남북으로 길게 건설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이 싹틔줄처럼 뻗어나가 있고 골목의 사이 사이를 작은 공장들이 채우고 있다. 청계상가를 비롯한 을지로 일대의 풍경은 이곳을 자주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것들이다. 손으로 쓴 낡은 간판과 90년 된 일본식 가옥, 작은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낡은 부품과 기계는 ‘이 물건은 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에너지와 활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현재도 2,300개가 넘는 업체가 넓지 않은 공간을 이웃하며 일대의 산업을 움직이고 있다. 이곳이 친숙한 이들은 주로 무언가 ‘만드는’ 이들일 것이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재료를 사거나 작업을 하며 자주 오게 되는 곳이니 친근하죠.” 디자이너 소동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고향 같은 산림동 골목에 2015년 동네 이름을 딴 ‘산림조형’이라는 작업실을 꾸렸다. 비슷한 시기에 근처 골목 안의



흥흥하게 비어 있던 공간 6개에 그를 포함해 8팀의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왔다. 중구청에서 진행한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가 그 계기다.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는 을지로 내 산림동의 빈 점포를 중구에서 임대해 청년 창작자(만 19~39세)들에게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여름과 2016년 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들은 임차료의 10%와 운영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산업 전성기가 지나고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러 이유로 개발에서 멀어진 을지로 일대는 여전히 작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감에도 ‘쇠퇴’의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 비좁은 골목을 낀 오래된 건물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았다. 해가 지면 몰라보게 을씨년스럽던 이곳은 젊은 창작자들이 자리를 잡고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구에서는 도심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창작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작업실을 쓰면서 자신의 작업을 이어갈 수 있어 양측 두루 반응이 좋다.

“작업실을 지원받고 을지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할 수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좋지요. 이곳 장인·상인 분들도 젊은 사람들을 반겨주세요. 지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옆집 사장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시고,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고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구와 조명 등을 만드는 소동호 작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을지로 투어 프로그램 ‘을지유람’의 지도를 제작했고, 타일·도기 업체가 특화된 점을 모티브로 을지로3가 버스정류장의 의자를 작업했다.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팀도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창작과 예술교육을 병행하는 예술단체 ‘R3028’은 산림동 예술길 프로젝트와 공동체를 위한 공간 마당(maDang) 조성 사업 등 문화 정비사업을, 디자인 스튜디오 ‘서클활동’은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금속재료나 가공 기법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지생산’ 프로젝트)을 진행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현지 작가는 작업실 이름을 ‘이현지 을지로기록관’이라 짓고 근대의 풍경이 아직 남아 있는 을지로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낸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1년 남짓.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거둔 프로젝트와, 이제 막 활성화하기 시작한 청년 지원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동호 작가에게 물었다.

“일단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청년 창작자의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게 분명 좋은 효과도 있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성과가 부각되고 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가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청년 지원 정책도 청년 당사자와 그가 연계된 지역 등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의 기간을 달리할 수 있었으면 해요. 단 기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지역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작업의 경우 2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난 12월 22일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의 16개월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 자리에서 “을지로의 골목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새로워졌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원 영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과는 다른 세대(청년)의, 다른 종류의 ‘만들기’를 이어가는 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림동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가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히면서 천천히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동의 유휴공간에 젊은 작가들이 동지를 틀면서 동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1 청년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들이 모여 '반상회'를 진행해 공간 운영과 활동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2 세운상가에서 진행된 '비둘기 오디오&비디오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영상 설치 작품.

3 무중력시대 G밸리 전체 공간.

4 무중력시대 대방동 전체 공간.

청년청: 놀고 생활하고 생산하는 '청년의 서식지'

청년청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22동에 자리한 공간으로 지난 2015년 9월 57개 단체가 입주를 시작하며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1월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청년의 일자리(취업 지원), 설자리(청년수당 지원), 살자리(주거 지원), 놀자리(청년 활동공간 마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청년청은 이 중 '놀자리'의 하나로 마련된 공간이다. 청년청이라는 공간에 대해 어떤 목적을 열거하기 보다 '청년의 서식지'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놀이, 커뮤니티 활동, 생산적인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대표자가 만 19~39세인 곳'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년청의 최진 공간조성팀장은 서울시내 창작공간과 공유공간 등 청년 세대에게 지원되는 여러 공간과 청년청의 대표적인 차이에 대해 '입주자가 특정한 장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공간은 크게 창업공간과 예술가 창작공간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중 창작공간은 장르별로 특성화돼 있고요. 청년청은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어서 시너지가 생기기 좋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팀이 있는데 그들이 만나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협업 관계도 생기거든요. 새로운 게 발생하려면 서로 이질적인 것이 부딪쳐야 하는데 청년청이 그런 공간인 거죠."

현재 자리(서울혁신파크 22동)에 호텔 건립이 계획돼 2017년 2월에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철거가 미뤄져 청년청은 3년의 기간을 보장받았다(3년 안에 호텔 개발이 진행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건물 1층에는 55개 단체가 초기 입주할 때 약속했던 '공용공간'의 공사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이곳은 청년청의 입주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만 19~39세) 중 경력단절여성이 많은 점에 착안해 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입주단체들이 기획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의 '해볼 만한 공간'은 '함께 해볼 만한 공간'으로, 사람과 공간이 가진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세운상가: 예술가와 메이커, 장인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1968년 건립된 세운상가는 아날로그 기술의 메카였다. 1980년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으며 한때는 도심의 애틋단지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기·전자제품의 집산지이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원조 메이커들이 모인 곳이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5년부터는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기술 장인과 젊은 메이커,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의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저렴한 임차료와 편리한 교통, 다양한 제조 기반 인프라 등의 이점이 있어 2~3년 전부터 젊은 창작자들이 등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개방형 스튜디오 'Slow Slow Quick Quick', 메이커를 위한 작업공간 'FabLab Seoul' 등 36개의 창작공간·단체가 입주해 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젊은 예술가들은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에 새 숨을 불어넣었다. 서울시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세운·청계·대림상가 지역의 활성화와 공동체 발골을 위해 진행된 주민공모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6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비둘기 오디오&비디오 페스티벌'은 을지로·청계천 인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창작단체들이 직접 기획한 축제로, 세운상가의 공간성을 오디오·비디오 작품에 담았다. 시민들이 참



여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됐다. ‘다시 세운 꽃찬길: 인피오라타 2016 in 세운’은 도로와 거리를 캔버스 삼아 꽃잎과 나뭇잎 등으로 모자이크 형태의 꽃 그림을 완성하는 인피오라타(INFIORATA)를 선보였고, ‘다시 웃는 세운상가’는 이목을 화가의 대형 스마일 그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시민들의 그림과 메시지를 트리에 장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인의 기술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융합한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서울상상력발전소’, 청소년의 창작활동을 대안교육과 접목한 ‘손끝기술학교’ 등 세운상가는 지금 젊은 예술가들과 기술 장인,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무중력지대: 취업과 먹고사니즘의 무거운 중력으로부터 잠시 쉬어가는 곳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끊임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공유공간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청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기획되었고 서울시의 협력으로 2015년 4월 28일 탄생했다. 일, 공부, 창업, 토론, 모임,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년활동에 열린 공간이며, 나아가 취업, 주거, 생활 안정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역시 지원한다.

무중력지대는 대방동(무중력지대 대방동)과 가산디지털단지(무중력지대 G밸리) 두 곳에서 운영되는데, 이 두 곳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대방동은 노랑진 학원가와 가까이 있는 특성에 기초해 취업, 주거, 생활 안정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교육 및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만 먹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나눔부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워크숍룸’이 마련돼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공유경제 방식의 프로그램 ‘재능나눔’이 펼쳐진다. 이와 달리 무중력지대 G밸리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장인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공동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는 ‘월요브런치’ 시간이 마련되며 연기와 드로잉, 시 창작 클래스 등이 개설돼 있는 직장인 예술대학 ‘G밸리 아트 유니’, 청년 직장인 및 청년 구직자의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힘을 내요 스터디 파워’ 등이 운영된다. 이 밖에 청년 문제 해결과 관련한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수시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무중력지대를 이용한 사람은 약 6만 명. 이용자 숫자로는 국내 공유공간 중 최고점을 찍었다.



글
이아림, 조아라

사진
김형제

사진 제공
청년청 youthfield.kr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youthzone.kr

청년예술가 3인에게 듣다

젊은 예술을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을 꿈꾸며

N포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 청년예술가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살아남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 3인에게 물었다. 청년예술가의 현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일까.

〈비기너스 프로젝트〉 선정 작가 장예리

“단기적 성과를 넘어 예술교육의 본질을”

장예리는 해금 연주자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진 예술가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서울문화재단의 〈비기너스 프로젝트〉에 참여, 아름다운 동화를 창작 음악극으로 표현한 ‘동화 읽어주는 해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지원 동기와 진행 과정에 대해 들려주세요.

저는 연주자로 꾸준히 활동해왔지만 스스로 중심이 되어 작품을 만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좋은 책들의 감동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현할 방법을 찾다가 〈비기너스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으로 함께할

배우들과 악사, 연출가를 섭외하고, 코칭을 받아 ‘동화 읽어주는 해금’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원 기준도 파격적이었고, 처음 도전한 지원사업인데 생각보다 진행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무대 공연을 지속할 에너지와 여러 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자이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술강사 사업은 일자리 사업 프레임으로 바라본 예술인 지원정책의 대표 사례로, 관련 쟁점 또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가 지원정책이 창작 성과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 자리를 얻기 위해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지만,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단순히 돈을 버는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굳건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강사일 뿐이지만, 학생들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점차 관심을 보이며 마침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본질을 흐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또, 단기적으로 예술강사의 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예술강사들은 초단시간 근무자로 분류되어 열악한 근무 조건과 매년 재계약을 통해 강사직을 이어나가는 등 고용 불안을 끌어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현재 예술강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술강사 반복 참여 과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됐거든요. 기존 강사들이 대대적으로 해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자를 길러내려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술강사 사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영동한 사진관〉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작업을 하다 보면 공간이나 장비를 구하는 것도, 작품에 대한 발전적 피드백을 얻는 것도 항상 어려워요. 가벼운 통장과 내일에 대한 불안에도 굴하지 않고 작업을 지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던 중 〈영동한 사진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 2명의 친구와 함께 ‘생색’이라는 팀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영동한 사진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집을 방문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 가족이 떠오르는 물건을 모아 정물화 형식으로 촬영하고, 이를 새로운 가족사진으로 제안해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올림푸스한국에서 기부한 지원금 1,500만 원과 카메라 한 대, 전시공간을 지원받았고 그 밖에도 전시를 준비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덕분에 사진 촬영에 사용된 물건들을 가져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청년들의 인터뷰를 모아 ‘가족보관함’ 전시를 열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제게는 큰 금액이어서 가장 중요한 사진 촬영과 전시만큼은 자유롭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작품 제작과 전시 구성을 직접 하는 이들이 쏟는 무형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게나마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범위가 고려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동한 사진관〉 프로젝트는 등록금, 취업, 주거 등 청년 세대를 둘러싼 이슈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공간에 주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보관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또래 청년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2015년, 저는 1년 동안 세 번이나 이사해야 했어요. 돈이 없어서 기숙사, 옥탑방, 대학생 임대주택을 전전했는데 방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청년들이 어렵게 얻은 자신의 공간에서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보관함’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언젠가 떠나와야만 했던 가족들의 흔적,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기억을 청년들의 방 안에서 찾아주고 싶었어요. 일상적 소품들과 소소한 방 안의 풍경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20~30대 청년 23명의 자취방을 방문해 촬영을 진행했는데, 어릴 때처럼 주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영동한 사진관〉 프로젝트 선정팀 ‘생색’의 작가 조혜영 “미래를 바라보는 지속적 지원을”

조혜영은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 다큐멘터리와 미술을 배우며 작업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다. 2016년 6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진행된 〈영동한 사진관〉 공모에 김진익, 이현우, 조혜영 3인으로 구성된 팀 ‘생색’으로 참여,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간과 그 속에 담긴 기억을 사진에 담은 ‘가족보관함’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대 청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선보였다.



생겨 즐거웠어요. 다들 크기만 조금씩 다를 뿐 비슷한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놀랐고, 그 작은 아늑함을 얻는 것이 독립의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만 시작조차 참 어려운 세상 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독립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과 외로움이 분명 있지만 다들 꾀꾀하더라고요.

청년예술가 입장에서 현재의 신진 예술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술 관련 학부를 갓 졸업한 청년이 작업의 경제적·실용적 효용을 증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회가 청년예술가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그런 것들인가 싶어서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예술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의 청년 예술가들이 미래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어떤 자질을 지원 기준으로 삼을지 길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보상과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 토론〉 참여자, 연기스터디 한걸음 대표 김세환 “성공보다는 공생의 패러다임을”

연극연출가이자 문화기획자인 김세환은 카페스튜디오 배우·다와 연기스터디 한걸음을 운영하며, 소극당해화당 운영위원·프로그램머로도 활동 중이다. 예술가의 생존과 예술의 지속성,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그는 지난 12월 개최된 〈청년, 문화 예술 토론〉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업 연극인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인데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힘겹습니다. 혼자만 힘들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만, 모두가 힘들다면 구조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청년지원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기 분야는 예술인 복지의 최전방에 놓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카페스튜디오 배우·다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카페 겸 연습실입니다. 청년예술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생계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지원금 제도도 있지만 소액다건 형식으로 나눠주는 현 정책에선 인건비 책정도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령이나 조건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청년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인 만큼 기준이 되는 나이를 무

한정 늘릴 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으니 늦게 출발하는 분들을 위해 38세까지는 기준을 연장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를 청년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토론〉에서 공생의 패러다임과 예술가들이 직접 극장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적 활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독립적 활동과 공적인 지원 정책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최근 국가가 상식을 초월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을 보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란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는데요, 성공 패러다임에 눈이 멀어 공생의 가치를 소멸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 전체가 당장 변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문화예술계만큼은 공생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예술가들에게는 평등한 기회와 건전한 경쟁,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극장해화당을 운영하는 것도 대학로에 대관료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소극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한다면 공공의 영역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극장은 지역 축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문화학교이자 다양한 예술단체를 키워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극장은 공공성을 고민하고, 국공립기관은 공간을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예술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책개발 과정에 청년예술가들이 포함되지 않고 문화행정가, 혹은 문화기관 사업 담당자 일부만 모여 회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지역문화 전문가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게더링(gathering)*’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각기 다른 분야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청년예술가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교육, 복지, 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계와 예술의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나갑니다. 이런 식의 정책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 또는 수집(과정).

글
조아라

사진 제공
장예리, 조혜영,
김세환

서울문화재단
〈비기너스프로젝트〉
‘최초예술지원’ 선정작

"삶은 예술보다 아름답다"

통영가족의 시베리아 횡단기


통영시인
최정규


꽃자리시인
유귀자


생활영화인
유최늘샘


집시가수
에슬

시 | 유귀자 최정규 음악 | 에슬 <Asto Na Pai> Shisu Hashimoto 촬영 | 이슬비 연출 | 늘샘

후원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시인 고은 모국어의 영토 너머로 확장되는 시인의 영혼

지난 1월 11일 고은 시인이 이탈리아 로마재단이 수여하는 국제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은 시인은 2005년 노르웨이 비에른손 훈장을 시작으로 2008년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2014년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황금회환상과 이탈리아 노르드수드상 등 이미 해외에서 문학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팔순을 훌쩍 넘긴, 그러나 세계 문단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은 시인을 김형수 시인이 만났다.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모국어에 대한 강한 애착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결코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는 근원적 자세 아닌가.

시가 반드시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인의 구변(口辯)은 두고두고 작품을 압도한다. 고은 시인이 그렇다. 선생님을 만나면 일상의 언어들이 ‘사유의 향연’을 이루는 ‘말의 축제’를 경험을 하게 된다. 거의 3분에 한 번씩 전율할 듯한 생명 부호를 쏟아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런 살아 있는 말이 유난히 그리웠다. 온 나라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건잡을 수 없이 서쪽으로 떠내려가는 느낌이랄까, 날마다 문명의 석양 속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뵈던 날, 동행한 후배 안현미 시인이 어수선했던 세월에 블랙리스트 문제로 선생님이 일갈한 인터뷰 기사를 상기시켰다. 다들 ‘한 번도 국민이 돼본 적이 없는, 시민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야기한’ 경박한 시대를 걱정하고 지나갔다.

나는 고은 선생님의 수사법에 꽤 단련된 편에 속했다. 몇 년 전 어느 일간지에서 1년간 대담을 연재해 〈두 세기의 달빛〉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한 계간지에 ‘고은 깊은 곳’을 탐구하는 대담을 세 차례나 게재하기도 했다. 사실, 고은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풍미할 만큼 범람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다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선생님! 지상에서 누리는 개개인의 삶이 국경을 넘은 지 오래인데, 한국문학은 아직 ‘모국어 너머’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국제활동에 대해 인식할 틀이 제공되지 않은 셈입니다. 언론도 선생님의 20여 년을 ‘여러 나라의 행사에 초대받아서 외유한 시기’ 정도로 인식하고 맙니다.”

나는 이 같은 문제의식의 타당성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한 시인의 정신세계가 모국어의 영토를 차고 넘쳐서 여러 대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무슨 ‘국제적 이벤트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쪽으로 여기는 건 얼마나 단견인지 모른다. 한국의 미디어들이 ‘지구촌 문단에 속한 고은’을 읽으려면 당대 문



학이 불시착해 있는 현장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어 이야기 마당이 시작되었다.

한국 문단이 ‘타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위 ‘세계화 시대’가 논의되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들 지구촌 시대의 민족문학을 고민하던 때 선생님은 이미 모국어 너머에서 문학활동을 펼쳐가고 있었 습니다. 첫 풍경이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권이라는, 해외의 특정 지역을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정부 발행의 증명서는 나에게겐 생소한 것이었네. 따라서 내 문학은 거의 숙명적인, 한반도 이남에서만 가능한 표현활동일 수밖에 없었네. 이를테면 식민지 시대 초기의 이광수가 일본어로 첫 단편소설을 발표한 일이나 1930년대의 이상이가 일본어로 시를 쓰는 일조차 1950년대의 나에게겐 어렵었네킨. 그야말로 폐허에 남은 것은 상처 많은 모국어밖에 없었지. 그런 터라 세계라는 말은 지리학의 개념이기보다 ‘세상살이’의 삶 개념이기 십상이었어. 더구나 1970년대 이래 나는 이른바 반체제 진영의 반독재 저항과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현



눈물겨운 일은 수난 속의 쿠르드족 쿠르드어로도
시가 번역되었다는 점인데,
그 피어린 독립운동 중에서도 동아시아 시를 찾는 것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의 원칙으로 삼는 사실은 결코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는 근원적 자제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가 아닌 고대에도 세계는 미지의 장소를 모험하려는 본능이 있었네. 인류의 원조가 저 아프리카 1명 단위의 자연취락에서 100명 단위의 선발된 남녀로 세계 각 지역으로 산개해온 인류사 자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고역을 마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나'라는 유전인자 속에는 수많은 지역과 장소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하나의 '세계'가 들어 있을 것인데. 남미 원주민과 몽골인의 동질성을 생각해보세. 인간뿐이 아니네. 아르헨티나 원산의 꽃이 아주 오래전에 동북아시아 농경사회에 와서 옥잠화라는 조선 여인의 표상이 된 것을 생각해보게. 제주도의 문주란은 일본 규슈 지방에서는 '하마유'라 하지. 그 꽃은 저 남아프리카 연방의 원산지에서 인도양 서태평양의 문순 해면을 떠다니다 표착한 긴 여로 끝에 토착 식물이 되었다네. 어찌 이것뿐인가. 중국 자기가 로마로 건너가고 드디어 영국이라는 섬에까지 건너가 그곳의 자기로 명성을 떨치지 않는가. '본 차이나'라는 이름에 그런 역사가 들어 있었지. 아니 히말라야 남쪽의 불교가 서북인도 간다라를 경유, 실크로드를 거치는 동안 대승불교의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건너오는 일은 무엇인가. 아니 뎀어나 필리어가 중국 문화로 옮겨져 동아시아 불교가 성립되었네. 단한 농경사회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끊임없이 세계를 갈망하고 세계 속에서 자아를 다시 강화했네.

실참여 노선을 내 일상으로 삼아오는 동안 여권 발부의 금지대상자로 굳어졌네.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버클리 대학의 한 국제포럼에서도 미 국무성의 지원으로 1회용 임시여행 증명서를 얻어서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 내란음모죄, 계엄령 위반, 계엄교사 등의 전과자 신분이 사면되어서 비로소 '양민(良民) 신분'을 회복해서 여권이 나왔네. 그 이래 20여 년의 해외 초청이 세계 각지에서 연달았어. 지금까지 100회 이상, 한 해에 10회 이상 초청받는 일도 있는데, 대체로 5회 6회 정도 초청에 부응하는 형편이네. 어찌면 지난 시대의 출국금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것인가 하고 여기네.

영화나 음악, 미술이 국경을 넘는 것과 문학이 국경을 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으니까요.

문학은 언어라는 경계에 원천적으로 구애받는 고유성으로부터 아직껏 함부로 일탈할 수 없다네. 지금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시인이나 소설가가 모국어에 대한 강한 애착을 자신

선생님처럼 투옥 경험을 가진 저항적 정신들은 해외로 소개될 때 당국의 방해를 받았는데요?

그랬네. 그런데 폭력 체제에서의 저항에는 해외의 가능성 따위를 오히려 사절하는 독자성도 들어 있었네. 양당배를 미국으로 여기고 특히 1950년대 이래의 '양공주'를 그들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킨 것도 일종의 배타적인 자아폐쇄에서 나왔어. 실제로 나도 1970년대 말이나 1980



년대에 외국 후원단체의 지원금도 거절하는 ‘순수민족주의’를 문학운동과 사회운동에 적용했지. 하나의 근본주의였네.

외람됩니다만 한국의 언론에서는 ‘노벨문학상 후보’라거나 외국의 문학상 수상 소식이나 전할 때 언급합니다. 여러 대륙의 축제나 회합 등에 초대받는 가십거리 내용을 전하다 보면 한국 시인이 국제문단에서 놓인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그간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20년 이상 된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릴 수는 없네. 내 창비의 한글 홈페이지¹나 한국문학번역원 영문 홈페이지²를 보면 거기에 정리된 사례들이 있어. 시 낭독 프로와 시론이나 내 사유 세계를 드러내는 인문학 포럼의 기조발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 제작년 가을에는 프랑스 미술대축제의 기조연설로 미에 대한 것도 발표하고 독일 종합지에는 철학적인 논제에도 참여했어. 일간지나 정기간행물의 특집 등에도 포함되고…. 또한 나는 세계 주요 국가 TV방송 인터뷰도 사양한 적이 없네. 내 탄생 80회 해당 해에는 독일 주요 신문에 80세를 축하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네. 독일 라디오도 내 특집이 있었고.

<만인보>가 프랑스 교과서에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국제 무대에서 있었던 문학적 발언, 작품 교류, 타 언어권과 형성된 동료관계 등을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프랑스에서는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학위로 ‘만인보 연구’가 있었고, 중고등 교재로 선정된 곳은 스웨덴이었네. ‘현대의 고전’ 시리즈로 토마스만의 장편과 내 ‘만인보’ 스웨덴어판 130여 편이었네. 그 밖에 내 시와 소설이 번역된 외국어는 27개 국어이네. 인도 남부의 타밀이나 아프리카 부족어, 그리고 저 우즈베키스탄어로도 번역되고 있네. 눈물겨운 일은 수난 속의 쿠르드족 쿠르드어로도 시가 번역되었다는 점이네. 그 피어린 독립운동 중에서도 동아시아 시를 찾는 것은 너무 감동적이네. 그리고 스위스 4개 공용어는 이탈리아어 독일어 불어와 한때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대 앵가딘 지역의 로망스어가 있네. 고대 로마가 망할 때의 로마 상류층 난민들이 그곳에서 라틴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고어(古語)라네. 그 언어로 쓰는 시인과 조각가가 최근 나에게 내 시 한 편을 자기 시집 제사(題辭)로 쓰는 것을 승낙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네. 또 포르투갈 시인도 자기 시집에 내 시 한 편을 내세우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네.

선생님의 작품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문학상도 몇 개 받았네. 캐나다 그리핀 트리스트 평생공정상은 세계 각국 원로 시인에게 주는 것인데, 나 이전에는 스웨덴 토마스 트란스프리메르이고 나 다음에는 독일 엔첸즈베르거이네. 다 나보다 연상이지. 미국의 존 애시 버리도 있네. 이 상 말고 마케도니아 황금화환상과 이탈리아 페스카라 시 부문상, 노르웨이 비에른손 훈장, 올해 2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재단 국제시인상 등을 받네. 이것들 말고도 유네스코 세계시 아카데미 창립회원이자 명예시인의 ‘시의 날’ 제정에 참여한 바 있고, 밀라노 안브로시아나 아카데미 정회원이네. 또 베네치아 대한 명예 펠로로 추대되었네. 나는 이제 세계의 여러 시인 축제에는 ‘명예시인’ 또는 ‘주빈시인’으로 좀 예우를 받고 있고 기조연설자가 될 때가 많네.

미국 시인들은 선생님을 ‘아시아의 비트제너레이션’으로 생각하죠? 저도 기억합니다. 1989년 선생님이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미국 시인 앨런 긴스버그와 시 낭송을 하셨을 때 인상이 아주 강렬해요. 그 때부터 국제적 문우 관계가 생겨난 거지요?

앨런 긴스버그는 나를 세계로 내세운 형제 시인이라네. 물론 그 직후는 미국 계관시인이던 로버트 하스였지. 하스는 내 시 세계를 ‘워싱턴포스트’에 썼고 또 북 리뷰 오프 뉴욕의 1면 전체의 장문으로 ‘만인보론’을 발표했네. 앨런 긴스버그는 개리 스나이더에게 한국에 가게 되면 고은을 만나보라 했어. 내가 뉴욕 행사가 끝나고 그곳의 긴스버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냥 뉴욕에서 서울로 가지 말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개리 스나이더를 만나라고 했어. 그런데 긴스버그가 죽은 뒤에야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 버클리에서 그를 만났지. 두 시인 다 ‘비트’의 1세대였네. 그중 가장 젊었던 매클루이도 서부에서 사는데 내 시를 읽으려고 뉴욕까지 날아온 적이 있지. 비트와 내 선(禪)적 경험에는 일종의 혈연성이 없지 않아. 지금도 서부 시인들은 푸코 따위가 뭐냐, 태양과 파인트리가 우리 시의 이웃이야 하고 말하지. 그 밖에 세계 각국에 형제들이 있어. 스나이더는 ‘고은은 지구 저쪽의 형제 시인’이라고 하지. 프랑스의 미셀드기도 내 형제지. 남아프리카 시인 브레이든 브레이트 바하도 영혼의 혈친이라네. 죽은 스웨덴의 트란스트리메르도 내 스웨덴판 서시를 써주었네. 나를 위해 뇌졸중 뒤 왼손으로 피아노 연주를 해주었지. 멕시코 시인, 중국 시인들, 시리아 아도니스도 내 아랍어 시집을 다 찾아 읽었지. 폴란드 시인 수그보르스카야는 세상을 떠났



고,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콜리나스도 아우처럼 여긴다네. 최근에는 동유럽의 시인들과도 친밀하다네.

문학은 유구할지라도 문명의 형식에 따라 언어의 소통 방식, 매개 수단 등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진전과 문학적 소통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만두게. 실컷 희미해지다가 다시 소생하네. 시는, 또는 문학은 앞으로 몇 번의 문명 형식의 시련을 받을 것이네.

고은 시인은 올해 85세인데, 그 나이에 세계와 맞서서 ‘시대적 현역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 같았다. 내가 아쉬워하며 “선생님의 시를 사랑하는 각 대륙의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주시라” 했더니, “2017년의 행성 위에서 우리는 함께 숨 쉬며 함께 취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의 미학을 이루어갑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고 온 다음 날 주요 일간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다 투어 쏟아냈다.

“고은 시인이 이탈리아 로마재단에서 수여하는 2017년 ‘국제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고은 시인은 아담 자가에 프스키(폴란드), 하코보 코르티네스(스페인), 캐럴 앤 더피(영국)를 이은 네 번째 수상자다. 2월 3일 열리는 시상식에는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과 로마재단 이사장이 공동 시상자로 나서며, 고은 시인은 수상 기념 연설을 하고 시 낭송을 한다. 시축제는 로마의 아드리아노 신전과 피에트라 광장에서 2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¹⁾²⁾

영어판 시선집
《Beyond Self》
출판을 기념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리 스나이더와
함께한
시낭송회(1997).

글
김형수
시인, 고은대담집
《두 세기의 달빛》 저자.
신동엽문학관 상임이사

사진
김창제

자료 사진 제공
고은재단
www.kounfoundation.
com

1 창비 한글 홈페이지 goo.gl/jx46nN
2 한국문학번역원 영문 홈페이지 library.kti.or.kr/node/9

공연기획자 조하나, 나희경, 정하린

생존이 아닌, 살아 있는 기획을 위하여

무대에서는 배우를, 작품에서는 작가와 연출을 본다.
하지만 한 편의 공연이 관객과 만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과정에는 기획자가 있다. 2016년 <뉴스테이지(NEWStage)>에
함께한 조하나, 나희경, 정하린 세 명의 기획자를 만나
이들의 삶과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7년 1월 5~22일, 2016년 <뉴스테이지(NEWStage)>에
선정된 네 편의 작품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뉴스테이지는
신진 연출가의 작품 개발부터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연주, 김
정, 이은서, 신명민 연출가는 낭독공연, 멘토링,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첫 작품을 관객 앞에 선보였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조하나, 나희경, 정하린은 대학
로를 지키는 젊은 기획자들이다. 공연기획사 킷처버스의 프
로듀서인 조하나(32)는 연극과 무용, 다원 등 장르를 불문하
고 폭넓게 활동 중이며, 프리랜서 기획자 나희경(29)은 'Play
for Life'라는 이름 아래 작은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활약하
고 있다. 정하린(32)은 창작집단 LAS에 속해 활동하는 기획
자다. 극단 구성원들과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에 조금씩 가까
워지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2009년부터 기획자의 길을 걸어온 이 세 명의 젊은 기
획자는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길'을 제시하는 무대 뒤의
숨은 주인공이다. 이들은 공연기획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기획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어 보려 한다. 먼저, 어떻게 공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로 시작하면
좋겠다.**

조하나 인터넷 신문사에서 공연 기사, 리뷰 등 글 쓰는 일을
하다가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
시작하게 됐다.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고 싶어 예술경
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기획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무용 기획을 했지

NEWStage

만 지금은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활동 중이다.

정하린 영화연출을 전공했는데, 여행 중 에든버러 페스티벌
의 공연들을 보고 공연관이 확 넓어지면서 직접 해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극단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 동기
인 이기쁨 연출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작집단 LAS의 기
획자로 함께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제작사 '프로덕션
LAS'도 운영하고 있다. 극단과 영화제작사를 합쳐 'The LAS'
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나희경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연극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게 기획사였고, 2009년 파파프로덕션에서 일을 시작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연기획을 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희곡공모전도 있었고,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배우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뉴스테이지는 연출가 지원사업으로 프로덕션 구성과 제작은 선정 연출가가 직접 진행한다. 뉴스테이지 작업은 어떻게 같이하게 되었는가. 또, 기획자로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하나 연출가 이연주, 김정 모두 이전부터 작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뉴스테이지까지 이어진 것 같다. 내가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좋은 공연과 좋은 연출가들

이 나를 기획해주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획자로서 나의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하린 극단에 속해 있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다. 극단 외의 기획 작업은 맡고 있지 않다.

나희경 이어서 연출가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AYAF(현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로 통합)에 선정되어 진행한 〈반야삼촌〉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번 뉴스테이지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이어서 연출가가 이번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는 예술가인가?’라는 질문이 나의 질문과 맞닿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다.

(왼쪽부터)
정하린, 조하나, 나희경.



1
이연주 연출가의
〈전화벨이 울린다〉.
2
김정 연출가의
〈손님들〉.

세 분 모두 2009년부터 기획자로 활동해왔다. 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정하린 내부에 기획자가 있는 극단이 많지 않기도 하고, LAS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획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다. 지금은 극단 운영 전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극단 살림살이를 챙긴다고 보면 된다. 업무로 보면 주로 지원사업과 극단 SNS 등을 관리하고, 극단에서 하고자 하는 작품이 있을 때 그 의의를 찾는 걸 돕는 역할을 한다. 대본 작업에서부터 창작 과정까지 명확하게 길을 잡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극단 안에 기획자가 없다고 해도 작품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 또한 분명 존재한다.

나희경 극단에 기획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자 없이 진행되는 공연도 많고 전문 기획자가 아닌 극단의 배우나 스태프들이 임시로 맡는 경우도 많다.

조하나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기획보다는 홍보마케팅 분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기획과 홍보마케팅은 다른 영역이지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자가 홍보마케팅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홍보마케팅 전문가가 아닌데 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또, 지금의 젊은 연출가들은 기획과 연출, 행정 등 모든 일을 다 한다. 결국 지금의 연극 창작 환경에서 기획자의 역할은 본의 아니게 홍보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나희경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앞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작품만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사람, 작품을 찾고 싶어서였다. 내가 좋아하고,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품을 할 때가 당연히 더 즐겁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이런 기회가 와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 스스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지는 극단 안에서 연출가를 중심으로 정해지고, 외부 기획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행정적인 역할이 많다 보니 '기획'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다.

조하나 동감한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소모'인 것 같다. 많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축적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획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장에서 전문 기획자의 영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인지 '작품이 좋다' '연출이 좋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기획이 좋다'는 말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좋은 기획이란 무엇일까.

조하나 어쩌면 대학로 기획자들의 핵심이고 한계일 수 있겠는데, 현장 기획자들이 기획을 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획자로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사업에 신청해도, 연



2

출가나 극단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획자가 시작한 작품은 선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연과 좋은 연출이 나를 기획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좋은 기획'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겠지만, 지금의 창작지원제도가 기획사나 기획자에게 충분히 열려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의 '기획'은 공공극장,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예산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희경 기획자가 홍보마케팅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자는 연출가와 소통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드라마터그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정도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신뢰와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조하나 지속적으로 작업을 같이하는 연출가들이 생겨나면서, 연출가들과 상의하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연출가와 극단의 방향과 정체성은 어느 한 작품으로 승부를 걸기보다 작품들이 쌓이면서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극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 기획자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 안에서 꾸준

히 소통할 수 있는 내부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하린 결국 제작비를 누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 극단 활동 초반에는 기획자로서 제안을 했지만 현실화하긴 힘들었다.

기획자로서 소모되지 않고, 역할을 한정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고민이 깊은 것 같다. 그동안 작업하면서 다른 기획자들과의 교류는 많은 편이었는가.

나희경 한 명의 기획자가 동시에 많은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일에 치여 사람 만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것 같다.

조하나 예전에 비해 연출가들의 네트워크는 많이 활성화되고, 활동도 많아진 것 같다. 그에 비해 기획자들의 네트워크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대학로에 올라가는 공연이 이렇게 많은데 작품에 비해 기획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끌어주는 선배 기획자도, 후배 기획자도 많지 않다. 9년째 대학로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막내 기획자인 것만 같다.

나희경 나는 그러한 연대를 연출가들과 쌓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료 기획자들이 없어서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 기획자로서 다음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연출가와 극단 중심의 지원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획의 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연극창작 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획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또, 연극계가 상생하기 위한 창작지원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희경 기획이 중심이 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대학로에 공유 사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프리랜서나 극단에서 사무적인 업무를 보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임차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정하린 기획자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선정 기준을 생각해보면 결국 작품성이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작품과 기획을 별개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조하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다양한데,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늘 '양성'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시작 단계의 기획자 양성지원 이후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현장 기획자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글
김지우
서울연극센터

사진
최영진, 서울문화재단



임
인
자



김
연
진



오
진
이



이
창
현

기획토론 '문화담론 순환선'

문화행동에서 문화정책으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는 2016년 사회적 예술, 예술가, 지역화전략, 생활문화 4개 소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문화담론 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주요 문화정책 의제와 관련된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찾아 창동, 은평 금속극장, 성수동, 광화문 4개 지역을 순환하며 4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4개 소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문화담론 순환선의 취지였던 재단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와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의 활동 방향을 잡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라
도
삼



김
중
휘



김
준
기

사회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문화정책위원장
토론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임인자	독립기획자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일시	2017. 1. 16. (월) 16:00~18:00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문화정책위원회는 ‘문화담론 순환선’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서울시 4군데를 다니면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 공공예술과 사회적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마지막에는 블랙리스트 예술가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문화생산자,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몇몇 예술가가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이 전대미문의 예술 현장에서 차기 정부 문화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새로운 문화정책은 어쩌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는 다층적인 블랙리스트 운동과 저항적인 몸짓에서 비롯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풀어냈으면 합니다.

김준기 사회적예술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예술’입니다. 이미 제도적으로도 진도가 많이 나간 사회적 경제 틀과 결합한 예술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운동이나 지원 체계 안에서 사회적 예술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 부분입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소외, 국가 지원의 불안한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사회적 예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술’입니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 단위대로 힘을 쓰는데,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아트를 하고 싶어 하는 동력과 만나지 않습니다. 고립과 분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묶어주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술행정과 사회적 예술의 만남일 것입니다. ‘미래예술과 사회적 예술’은 새로운 창작작(창작+제작) 기반의 확산과 사회적 예술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목할지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차원에서 짚

커뮤니티 아트가 장소 중심이라면 예술행동은 의제 중심입니다. 현장활동을 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다른 차원으로는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로 인해 예술가들이 나선 것이 문화행동입니다.

천막 농성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거가 있었고

그때 예술가는 가장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문화정책위원장

어보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아트와 사회적 예술’은 예술가들이 사는 동네와 창작 활동하는 근거지가 다른 데 이를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아트는 1년 단위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야 합니다. ‘예술행동과 사회적 예술’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아트가 장소 중심이라면 예술행동은 의제 중심입니다. 현장활동을 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다른 차원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이 현장의 꿈틀거리는 에너지와 결합할 수 있다면 예술행동과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예술에 대한 비평적 조망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공공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우리가 예견한 결과인데, 이제 국가의 실패, 공공의 실패도 논의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긍정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라면 여기에는 국가의 실패도 있습니다. 결국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로 인해 예술가들이 나선 것이 문화행동입니다. 그래서 천막 농성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거가 있었고 그럴 때 예술가는 가장 빛났던 것 같습니다. 문화행동이 앞으로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술가들이 왜 광화문에 나타났고, 거기서 얻은 것, 추구할 것은 무엇인지 예술가 소위원회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자 2016년 예술가 담론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국가 실패, 공공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열 사태에 대한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싸움은 2016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4년 말 시작해서 2015년까지 쭉 이어져왔는데요. 2016년에 그것이 블랙리스트라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대학교X포럼 등 연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싸우기 시작했고,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권리장전-검열각하’를 통해서 22개의 작품이 연속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예술계는 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 이후 광화문캠핑촌을 만들고 지금까지 노숙과 예술행동을 이어가며 예술검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정점으로 ‘광장극장 블랙텐트1’ 마련되었습니다. 광장극장 블랙텐트가 표방하는 것은 ‘빼앗긴 극장, 여기 다시 세우다’입니다. 2014년에는 공공극장에서 예술가들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지금 블랙텐트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라진 목소리를 포함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장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인 측면으로 돌아오면 ‘예술지원체계와 예술인 참여에 대한 변화 요구’입니다. ‘서울예술인플랜’과 같은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술가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열과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 자체도 편향된 주체로 보면서 자율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제로 연결되는데 예술과 정치 사이의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종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 변화에 따라 재단도 크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오래되었지만 기초적인 명제에 대한 실질적인 확립, 그리고 예술가를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재단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 속에 파괴된 공공성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장치, 계약, 고용보험 등 행정적인 안내 사항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예술, 사회적 예술도 오픈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가가 직접 어젠다를 재단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검열 연극을 보면서 연극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 연극인들의 최소한의 공간, 연극 무대에 서려고 하는 최소한의 존립 조건마저 박탈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이 있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연극에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있고, 국가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하면서 결국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들을 벌인 겁니다. 화난 예술인들이 광장에 텐트를 치고 극장을 세우는 이 역사적인 전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다음 정권에서도 문화정책을 한다면 이들이 해놓은 역사적인 증거들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님의 발표 내용에는 지역의 답원이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은 25개 자치구 기초권, 동 단위 근린권까지 촘촘한 지역협력체제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전달하는 플랫폼 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더 분명하게 요구되는 구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년간 지역화 전략 얘기를 해왔는데 2년 전 첫 시범사업이 ‘정릉예술마을만들기’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에서 볼 때 ‘예술마을만들기’가 입체적으로 손쉽게 조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돌아보니 서울문화재단, 자치구문화재단의 협력체계, 자치구 차원의 민간 예술 네트워크와의 협치가 거칠더라도 다 종합되어 있는, 서울의 자치구 문화분권의 모델사업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기초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준(準) 포괄적 예산 지원 방식으로 했는데, 행정 실무적으로도 앞선 경험이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권한을 위임하고 믿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 안에서 이런 방향성이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 예산에 큰 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술창작 활성화’에 올해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54%를 차지합니다.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와 매개자 양성 58%를 차지합니다. 예술교육사업도 ‘어린이청소년창의예술교육’이 66%를 차지합니다. 3개 사업의 대표 사업이 50%를 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명제를 확립하고 예술가를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재단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임인자 독립기획자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지역화, 지역분권,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체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이것을 잘게 쪼개진 기존 사업들과 한데 묶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 전략을 세워서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기로에서 선택을 잘 해서 지역분권에 입각한 기초권-근린생활권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서 광역이 기초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체계를 지금부터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업예산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구조적으로 생활문화지원단과 지역문화본부가 25개 자치구, 동 단위로 간다면 주민예술가를 놓고 사실상 선의의 경쟁관계가 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사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도 이것을 모듈화하고 지역문화본부를 채널로 25개 자치구가 광역과 공동 부문과 특화 부문의 기준을 세우고 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본부가 이런 채널로 간다면 차차 생활문화지원단의 사업과도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체계 안에서 예술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작지원은 어떤 것을 건드려주어야 하는지의 숙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오진이 생활문화지원단은 생활문화사업팀, 생활문화교류팀, 시민청까지 3팀을 아우릅니다. 공공예술센터가 지역문화팀으로 바뀌고, 축제팀과 거리예술창작센터가 하나로 묶여서 지역문화본부가 됩니다. 지금은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아마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가 활성화하도록 자연스레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예술도 공모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셨는데 지

역 대상 사회적 예술활동 지원영역으로 신설되어 공고될 예정입니다.

김연진 생활문화 소위원회는 10개 이상의 현장 사례 발표 중심으로, 두 번의 세미나와 한 번의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생활문화는 친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주제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상황과 사례별 특성이 중요하다 보니, 현실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조율해가는 매개자의 숙련된 소통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생활문화의 중요 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덴버그(Ray Oldenburg, 1932~)의 제3의 공간(Third Place)적인 의미들을 도서관에서 이미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지역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생활문화 정책 전달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역할 배분을 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생활문화 정책은 철저하게 현장 기반으로 돌아가서 현장 파악과 모니터링이 끊임 없이 수반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예산 마련도 중요하고요. 생활문화 정책 자체가 공간이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거점이나 조직, 유동적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문

사회적 예술도 공모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해주셨는데 올해부터 신설되어 공고될 예정입니다.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화는 보통 지역에 주민등록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활동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층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접근 방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도입 검토 중인 생활문화센터인증제는 사업 단위가 아닌 시설 단위로 고려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생활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생활문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메이커 운동에 대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함에도 활발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메이커 문화의 부재가 꼽힙니다. DIY의 생활화, 내 것을 내가 고치는, 서구사회에서 발달한 개러지(garage) 문화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내 정보를 나누고 펼치는 공유 문화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생활문화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를 'The way of Life'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점은 인간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길에 원칙 등과 같은 문화

정책 상의 원칙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사회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인 방향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에서도 근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부터 나의 인간다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중기 지금 해주신 말씀이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생활문화 지원단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예술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중심으로 사고하던 것에서, 생활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해야 합니다. 생활문화지원단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활문화를 잘 발굴하고 지역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인자 2012년 변방연극제에서 사카구치 교헤(Sakaguchi Kyohei)라는 일본 건축가를 초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것이 '움직이는 집'이라는 프로젝트²였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구조를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하고 만드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축가는 노숙자의 집을 통해 건축물을 고안했다고 하는데 문화가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이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메이커스 운동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드는지에 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삶의 양식을 포함한 것이라는 전제가 되고 왜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가는지가 기본이 될 때, 생활문화도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메이커스 문화도 사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이 결국은 인간다움이 부재한 문화정책이었다, 앞으로 인간다움을 지향해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재단의 모든 정책이 사실은 인간 없는 문화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결국은 인간다움과는 관계없는 기형적인 관변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한 게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게 합니다.

김중휘 생활문화와 지역을 떼어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종전의 취미 장르별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이것에 고정되지 않고 생활문화의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권-근린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 시스템을 잘 엮어 놓는 것에 훨씬 많은 동력을 들이고, 매개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아리가 몇 개 늘어났고 참여자가 몇 명

새로운 창작·제작 환경과 급속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4차산업 혁명을 넘어서는 미래사회 이슈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점은 인간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일 것입니다.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세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매개자들 없이 광역권으로 수요를 잡고 일방향으로 공급해서는 생활문화가 지속되기 힘들 겁니다.

김준기 생활문화 신에서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액티비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매개 역할에 약합니다. 아티스트로부터 출발하더라도 활동가 기반의 정체성이나 훈련이 잘된 분들, 매개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다수 발굴하는 것이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핵심입니다.

임인자 저는 액티비스트와 아티스트를 분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매개자와 예술가를 분리하는 것에도 반대하는데요. 예술가들은 자기확장성이 분명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유공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양식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동네는 왜 이러한 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개자, 예술가, 콘텐츠, 공유공간의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서 생활문화와 지역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이 자꾸만 무너지는 사회에서 도서관은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치공간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에서도 함께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도 있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값지게 쓸 겁니다. 그것은 어느 동네 미용실일 수도 목욕탕일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는 무언가 만들기보다는 그런 공간을 잘 발굴하고요. 예술가들에게는 그런 틈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라도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부분에선 성공사례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생활문화로 들어가면 문화기획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라 자발적인 내부 동력 없이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지도자와 혁신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인자 이번에 광주비엔날레를 할 때 〈도롱뇽의 비탄〉이라는 작품으로 도시 속 논에서 같이 연극을 했는데, 조직적이고 활성화한 커뮤니티와 연극이 만나니 폭발력이 강했습니다. 예술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 생활과 만났을 때 파급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로서의 역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아티스트로서의 역할, 액티비스트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기는 어렵습니

올해 문화정책위원회는 예술교육, 생활문화, 청년예술가 지원 세 가지 문제를 현장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 어느 정도 역할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요. 관념적으로 공유되었다고 개념을 통합해버리면 각각 갖고 있는 특성 또한 사라집니다. 완전히 상반된다기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정책 거버넌스를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도삼 소위원회에서 방향은 다 논의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갈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기본계획이 만들어졌지만 논의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생활문화와 지역화는 현장으로 오면 같은 단위입니다. 행정 단위에서 지역화가 안 되면 생활문화는 될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돈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사업들을 서울문화재단이 하게 되는 사태가 옵니다. 재단의 역할이 예술가 지원인지 생활문화 지원인지 혼동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정책위원회는 예술교육, 생활문화, 청년예술가 지원 세 가지 문제를 현장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문제가 생활문화입니다. 지역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생활문화도 풀 수 없습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가게 되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생활문화가 아닌 여가시간에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갈 확률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생활문화는 플랫폼을 무엇으로 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진이 인간다움을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지역 안에서 생활문화가 일상화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겠지요.

2016년은 풍성한 해였습니다. 4군대를 순환하면서 다양하게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예술, 공공예술, 생활문화, 블랙리스트 등 최소한 시대의 화두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겨 주고, 차기 정부에서 지자체 문화정책을 이야기할 때 문화정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레퍼런스로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광장극장 블랙텐트 페이스북 페이지 goo.gl/H5S8fM

2 제14회 서울변방연극제 공식 초청작: 사카구치 교헤 〈움직이는 집(A Mobile House)〉, goo.gl/Jkbl63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김창제

레고 사진가 이제형

어느 ‘성덕’의 즐거운 ‘덕업일치’

바야흐로 ‘덕후’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기며, 나아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덕업일치’(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것) ‘성덕’(성공한 덕후)과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다. <스타워즈> 마니아로, 국내 최초의 레고 사진가가 된 이제형도 성덕이라 칭할 만하다. 레고 사진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창이자,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레고 사진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는 16년째 교량 설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교량을 설계해왔는데, 2015년에는 강원도 춘천 중도에 들어서게 될 레고랜드 진입교량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만하면 레고와 정말 각별한 인연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어쨌든 토목 설계 엔지니어인 내가 어떻게 레고 스타워즈 사진을 찍게 되었는가 하면, 이는 내가 <스타워즈>의 광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KBS <토요명화>를 통해 접한 <스타워즈>(1977년작)로부터 시작된 나의 팬심은 지금껏 변함이 없고, 사진 또한 약 30년간 함께해온 취미다. 과거에는 주로 인물사진을 촬영했고, 레고를 전문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은 7년 정도 됐다. 아들과의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더 깊이 빠져 버렸다.

레고 사진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레고 사진가라는 개념이 생소하거나, 레고 사진가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아마추어 사진가’를 자처했던 나도 처음에는 레고 스타워즈를 예술적으로 담고 싶다는 바람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게 됐고, 레고를 이용한 공연과 다양한 협업을 하는 모아이(MOAI) 소속으로 호텔과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진행하



는 등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의뢰를 받아 레고 사진으로 웹툰을 제작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레고 사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꽤 많은 작가가 레고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키덜트 문화가 대중화하고 창작 영역이 확장된 만큼 관련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분야는 특수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사진에 이야기를 담다

레고의 모토는 '단순함(simplicity)'이다. 내 사진도 언뜻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레고 사진 촬영에는 생각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한 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아야 하므로 구상 작업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에는 레고 부품이 많지 않아 사진 작업 전 2~3주 정도 여유를 두고 필요한 부품을 해외에서 주문해야 한다. 회사 업무와 사진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나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무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메모하고 스케치해두었다가 휴일에 촬영하고 있다.

레고 피겨는 구조상 팔과 다리는 앞뒤로만, 머리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피겨의 표정과 포즈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수차례 촬영 각도를 조정하고, 조명 위치를 변경해야만 비로소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다. 이는 레고 사진 촬영만의 특수성이자 어려움이지만, 또한 매력이기도 하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 완성한 사진을 보며 사람들이 레고가 살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할

때 정말 보람되고 즐겁다.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다. 사진에 이야기가 녹아 있지 않다면 제품의 자료 사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 사진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먼저 알려졌고, 현재도 해외에서의 반응이 더 좋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한다. 조명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사진은 빛을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빛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착해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진 속 상황과 어울리는 조명을 가미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지난 7년간 영화나 그림 등 유명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둔 것은 아무래도 <스타워즈>의 말단 병사인 스톰트루퍼의 일상을 그려내는 작업이었다. 사실 스톰트루퍼는 하루하루가 고달픈 우리네 샐러리맨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회사원으로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을 캐릭터에 담아 재미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온 것이다.

스톰트루퍼는 값진 경험을 선물해준 고마운 캐릭터이기도 하다. <사막에서의 캠핑>이라는 사진 한 장 덕분에 있었던 일이다. 제국군 병사인 이들이 사막을 행군하는 도중 캠핑을 하며 통기타를 튕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인데, 영국 DK출판사의 요청으로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출판되는 레고 서적에 실리게 됐다. 세계 각국의 레고 팬들이 내 사진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뜻깊은 일 아닐 수 없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레고 사진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만큼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레고 사진 촬영이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레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탄탄한 스토리텔링, 뛰어난 사진 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레고 사진가에 도전하는 이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 믿는다. 이들에게 나는 완벽한 기교보다는 레고와 사진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만의 이야기를 구상하는 데 몰두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격려도 함께 덧붙이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라고 말이다.

글·사진
이제형
교량 설계
엔지니어이자 레고
전문 사진가. MOAICO
소속. SNS에서는
'장군운전병'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취미로 즐겨온 사진을
레고에 접목해
작품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개인전을
수차례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www.stormtrooper.kr

서울 찰나

세상은 지금 뭉툭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임은 평화론서 덩이노라

- 고은 시인의 시 <눈길> 중에서



국립미술관의 ‘블록버스터 전시’ 논란

한국 현대미술과 관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미술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새 전시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뒷말들이 떠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공공미술관으로 꼽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블록버스터성 새 전시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올해와 내년을 겨냥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전시 프로그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콘텐츠가 그동안 국내에서 익히 소개된 서양 고전미술, 현대미술 거장 기획전 일색으로 채워져 참신성이 떨어지고 일부 전시는 부실 우려마저 제기되는 참이다.

스페인 출신의 첫 외국인 수장 마리 바르토메우 관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비판의 초점이다. 올해와 내년 전시를 앞두고 큐레이팅 전문가를 자임해온 마리의 식견과 전시 철학이 반영될 새 콘텐츠가 무엇일지가 애초 주목거리였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 때 공개된 올해와 내년 전시 예정 리스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평이하거나, 진부하거나

팝아트 거장인 앤디 워홀(2~7월)과 리처드 해밀턴(11월~2018년 1월), 입체파 거장 파블로 피카소(2018년 예정) 등 서양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전을 중심으로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전(4~7월)과 폴란드의 현실 참여작가 크니슈토프 보디초크(7~10월), <신여성(가제)>전(10월~2018년 3월), 실험영화의 거장 요나스 메카스 감독의 작품전(11월~2018년 4월)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 상당수가 국내에 자주 소개된 서양 거장의 블록버스터성 기획전이다. 전시들을 두루 꿰는 일관된 흐름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피카소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국내 서양 거장 전시의 오랜 단골 레퍼터리다. 앤디 워홀 전시도 국내에서 술하게 열렸다. 새해 예정한 앤디 워홀 전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앤디 워홀: 그림자들>이란 제목 아래 1970년대 만든 실크스크린 연작 <그림자들> 102점을 전시한다는 게 뼈대다. 추상화에 대한 워홀의 초기 실험을 담은 작업들은 전 세계 순회전의 일부라고 한다. 워홀의 경우 지난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피쳐버그 앤디워홀 뮤지엄 컬렉션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으며, 앞서 2007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도 회고기획전이 열려 관객몰이를 했다. 무수한 국내 화랑이 그의 작품들로 술하게 판매전을 치렀던 만큼 신선도가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미술계 반응이다.

마리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기관에서 근현대 거장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 미술 트렌드를 실시간 공유해온 현재 한국 미술계나 관객 수준에 무지하거나 이해가 한참 뒤떨어져 보인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표류하는 ‘마리 프로젝트’

마리 관장은 취임 당시부터 관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전임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장 시절 기획전 작품에 대한 검열 논란으로 물러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부 미술인들이 취임 전후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어를 전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
올해 주요 전시로
서양 거장의 블록버스터
전시 계획을 밝힌
국립현대미술관(사진은
서울관 내부).

혀 구사하지 못하고 국내 미술계의 복잡한 내부 구도에 둔감하다
는 점 등도 우려를 샀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통
역이 있어야만 소통이 가능하고, 미술관 운영이나 전시기획 등에
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안팎으로부터 받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그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
낼 전시 기획 구상들이 평이하거나 진부한 재탕 수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질과 역량에 대한 회의감이 더욱 확산되는 김
새다. 그는 지난 연말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법인화를 전제로 서울
관과 과천관의 인력 조직 통합을 골자로 하는 원 뮤지엄 개편안도
밀어붙이고 있어 미술관 조직도 중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놓은 일부 전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관장이 간담회에서 2월 전시를 공언
했던 앤디 워홀 전은 순회전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구체적
인 개막 시점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의 한 기획자
는 “유럽에서 다양한 전시 경험을 쌓은 마리 관장에게 질적으로
진일보한 전시기획을 기대했는데, 운영은 고사하고 그의 특기라
는 전시기획 자체에서도 과거와의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
다”며 “지난 1년 동안 미술관과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 얼마나 깊
이 고민하고 성찰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원칙 깬 대관 전시

서울시립미술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김홍희 관
장 취임 당시 민간 기획사에 대관하는 블록버스터 전시를 하지 않
겠다던 공약을 깨고 지난 12월 16일부터 사실상 민간 기획사가
대관하는 인상파 대가 르누아르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차려 구설
을 불렀다. 대가의 여성 소재 그림을 선보이는 <르누아르의 여인>
전이다. 지난 1월 1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관장은 “블록버
스터 전시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전시를 계속하다
보니 대중 관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대중에게 좀 더 열린 전
시를 해보라는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한 결과다”라고 일부 언론에
설명했으나, 원칙을 깬 배경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 없이 전격적
으로 대관 전시를 허용한 것은 결국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지적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전시의 출품작을 국외 유명 미술관들
로부터 빌려오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중견 기획자를 최종 전시 계
약에서 배제하면서 전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
고, 출품이 예정됐던 명작 일부를 결국 대여하지 못하는 등 전시
에 차질이 생겼다. 새해 의욕적인 전시 콘셉트로 미술계에 새바람
을 일으키기는커녕 기획의 의도와 역량을 통째로 의심받는 상황
에 처한 국내 양대 미술관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글
노형석
한겨레신문
미술·문화재 전문기자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내부 © Kwangmo



송인서적 부도를 통해 본 출판계 현실

유통의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7년 새해 1월 2일. 다들 복과 덕담을 주고받느라 정신없던 그때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 소식이 출판계를 강타했다.

출판사 채무 277억 원, 부도어음 100억 원, 서점 잔고 212억 원, 은행 부채 59억 원, 도서 재고 40억 원이니 모두 688억 원 규모다.

“미결제 어음이 어느 정도 쌓이면, 돈 안 주면 출고 정지를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해서라도 일단 잔고를 낮춰야 했는데... 조금 늦기는 해도 막상 또 결제는 그럭저럭 되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일단 몇 백 줄 테니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읍소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띄엄띄엄 말을 이어가던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어쩐지 책이 좀 된다 싶었어요. 이래저래 따져보니 지난해 벌어놓은 거 다 까먹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막 웃음만 나네요.”

갑작스러운 부도, 원인은 저물어가는 시장

워낙 급작스러운 부도 소식이라 일각에선 고의 부도 얘기도 나왔다. 부도 소식이 알려진 뒤 송인서적 쪽과 처음 접촉한 한 출판

인은 “처음엔 어려운 점을 미리 털어놓고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끝은 안 당하지 않았겠냐고 책망도 했는데, 막상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니 최후까지 어떻게든 살길을 뚫어보기 위해 버둥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었다”며 씩씩해했다.

출판계가 송인서적 부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지 ‘한도 매상의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다. 출판계 고질병이 터져서다. 송인서적은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해주는 도매상이다. 교보, 영풍이나 예스24,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들은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중소형 서점에는 송인서적이 책을 공급해준다.

문제는 이게 저물어가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일단 책 읽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나이키가 경쟁 상대로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를 지목한 이유는 출판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디지털 시대, 책 보는 이들은 자꾸 줄었다. 그나마 지방 서점을 버티게 해준 건 학습지나 EBS교재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마저 취학 아동 인구의 감소세에 따라 크게 줄었다. 1990년대 5000여개가 넘던 전국 서점 수가 2015년 기준 1500개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원래 더 가파르게 감소할 예정이었는데, 요즘 ‘동네책방’ 유행이 불면서 폭락세가 진정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출판사, 서점은 바빴고 주무 부처는 무관심했다

도매상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출판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엔 ‘갑을’ 논리가 개입한다. 가령 많은 종류의, 인기 있는 책을 내놓는 대형 출판사는 도매상에 ‘갑’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다. 어음을 받더라도 보증이나 기타 안전판을 확보할 기회가 많다. 반면, 도매상에 기대서라도 지방 서점에 책을 내놓고 싶은 소형 출판사들은 ‘을’이다. 몇 달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 ‘갑을’ 논리의 특징상 최악의 폭탄은 ‘을 중의 을’을 찾아간다는 점이다. 어음을, 나쁜 조건의 어음을 받아든 출판사는 결국 이 어음으로 종이 회사, 인쇄소, 외주 디자인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한다.

서점들도 마찬가지다. 책 공급에 가격 조건만 내세운다. 무조건 싸게 내는 곳의 책을 받는다. 이런 곳들은 유통이 투명하지도 않다. 포스(POS) 시스템을 안 쓰는 곳이 많다. 포스 시스템은 편의점 계산기 같은 것이다. 책이 팔리면 일목요연한 통계가 만들어진다. 편의점 통계자료를 가지고 요즘 소비의 트렌드를 들여다볼 수 있듯, 포스 시스템이 깔리면 책의 유통이 투명해진다.



그러나 소매상들은 소득 노출이 싫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책의 전반적인 유통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고 어음 거래가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출판사, 소매 서점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송인서적이 최근 2~3년간 아무것도 안 남는 장사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전체적 흐름을 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출판사, 서점들이 제 살길에 바빴다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무관심했다. 문체부 조직상 ‘출판인쇄산업과’가 ‘미디어정책관’ 산하라는 게 대표적 예다. 영상·게임·대중문화가 ‘콘텐츠정책관’ 산하인 것과는 다르다. 출판계에서는 “별문제 아닌 것 같지만 한쪽은 규제 위주, 다른 쪽은 진흥 위주라는 기본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 출판계 인사는 “세종도서 같은 이런저런 사업으로 각 출판사들을 소액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유통 현대화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서적의 부도는 자금력 달리는 작은 출판사의 부도로 이어진다. 애석하게도, 제 색깔 가진 책을 내는 곳은 작은 출판사가 많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출판 생태계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영미권이나 유럽의 주요 신간들을 신속하게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작은 출판사’들의 부도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서울시가 각기 지원책을 내놓고 팔을 걷어붙인 건 그나마 다행이다.

1 알라딘 중고서점
신촌점(©TFurban
www.flickr.com/
photos/tfurban).
2 송인서적 홈페이지.

글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

혼돈과 검열의 문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달군 서울문화재단 10대 키워드

2016년, 문화예술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특히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불어온 날 선 바람은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그 속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해다. 두 달 동안 이어온 광화문 촛불 집회는 대통령 탄핵 가결을 알리는 호외(號外)로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바람을 담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가 며칠 만에 청원자 수 100만 명을 육박하는 등 사안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정치·사회적으로 수많은 혼돈이 모래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문화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가장 만신창이가 된 곳, 호사자들의 입방 아에 오르내린 곳이 문화예술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서울 곳곳에서 성공리에 펼쳐 보였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 언론 보도 노출 수로 정할까 아니면 포털 사이트 검색 횟수로 매길까. 단위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문화예술계 이슈와 엮어 10대 키워드를 추려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

01



01 블랙리스트를 넘어 문화의 촛불을 켜라!

11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총 288개 단체 7449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2016년 문화예술계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검열'이 아닐까 싶다. 이 검열 사태가 우리 재단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산예술센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작·연출 박근형)는 검열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을 풍자해 공연이 중단된 <개구리>에서 시작된 검열의 억압이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막이 오르니

폭발한 모양새다. 실제로 1월에 열린 '남산예술센터 시즌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 모인 기자들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도 문화부보다는 정치·사회부 기자의 관심이 쏟아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서일까. 연말에는 공연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작품으로 손꼽혔다. 월간 <한국연극>의 '2016 연극 베스트 7', 한국평론가협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연

02



극 베스트 3',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쓸었다. 검열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11월 9일 시민청에서 진행했다. 검열의 직접적 당사자로 지목된 신현식 양상블 시나위 대표를 비롯해 연극 평론가 김미도, 소설가 한창훈, 사진작가 노순택,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02 청년, 신진 예술가들, 지원(志願)하라, 지원(支援)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지원'이다. 대상은 예술가들이다. 더 원활한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개의 지원사업은 공모(公募) 과정을 거쳐 지원작을 선발한다. 과거의 활동 경력이 얼마나 충실한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에 역행하는 자격 요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 대상이다. 우리는 이태백, N포 세대 등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업이 <비기너스(Beginners)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신진 예술가 순수창작지원사업인 '최초예술지원사업'과 홍대 일대의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액다(多)컴'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독특한 선발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프로젝트 심사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원자들도 참여했다. 직접 오디션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셈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재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발전해가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르별 재능 있는 신진 예술가가 무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연극은 서울연극센터의 '뉴스테이지(NEWStage)', 무용은 서울무용센터의 '닷(DOT)', 음악·다원·전통은 문래예술공장의 'MAP(Mullae Arts Plus)', 시각예술은 서교예술실험센터의 '99℃'가 있다.

03 알파고보다 더 알파고 같은 장인의 숨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국내 통용되는 406개 직업군을 분석해 자동화 대체 확률을 발표했다.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가 대체할 직업을 1위부터 406위까지 정렬한 것이다.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콘크리트공, 정육원, 도축원, 조립원 등인 데 반해 자동화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들을 살펴보면 결국 '인간다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화가, 조각가, 사진사, 작가, 지휘자, 작곡

03



자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직업들은 컴퓨터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가 빠질 수 없다.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공간. 그중에서 공예가 중심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의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제6회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에서 도자의 최유진 작가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경연대회’ 수상자 13명에는 중 엄윤나, 양지윤, 김태령, 김선경 등 4명이나 포함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운상가 장인의 기술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융합한 <서울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았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메이커(Maker)들의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일컫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촉발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했다는 평을 받았다.

04 세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세계로

지난 6월 19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광고제 ‘칸 라이언스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Cannes Lions Creativity Festival)’에서 서울문화재단과 HS애드가 공동으로 기획한 <마음약방> 캠페인이 라이언스 헬스(Lions Health) 의약(Pharma) 부문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시민청과 대학로에 있는 마음치유 자판기인 <마음약방>은 ‘현대인의 고단한 마음을 문화로 위로받는다’라는 콘셉트로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라이언스 헬스 부문은 전 세계에서 모인 2605개 출품작 중에서 선정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한다. 또한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골목길이 공동 제작해 3월에 초연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페스티벌/도쿄(Festival/tokyo) 2016’에 공식 초청돼 일본 도쿄 아울스팟(Owlspot Theater) 극장에서

04



05



다시 막을 올렸다. 도쿄를 중심으로 2009년 시작된 ‘페스티벌/도쿄’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 참여한 여러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아시아 공연예술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05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연희문학창작촌은 한창훈의 신작 소설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낭독공연을 시민청에서 선보였다.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높지 않다’는 단 한 줄의 법조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동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세계. 유토피아를 담은 이야기는 ‘이상’을 꿈꾸는 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파란나라>(연출 김수정)도 마찬가지다. 연극을 보는 내내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에 맴돈다. ‘파란나라를 보았니/꿈과 사랑이 가득한//파란나라를 보았니/천사들이 사는 나라.’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신세계가 공동 제작한 <파란나라>에서 연극 무대 위 교실은 집단의 논리에 쉽게 좌우되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을 의미한다. 현실을 벗어나 이상을 추구하는 바람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를 통해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06

06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2003년 시작해 14회를 맞은 <하이서울페스티벌(HiSeoul Festival)>이 2016년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수년째 사용해온 이름을 버리고 <서울거리예술축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다시 태어났다. 흑자는 정치적 배경과 연계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석 예술감독은 “백화점식 축제가 아니라 2013년부터 선보인 ‘거리예술’로 특화된 아시아 대표

축제를 지향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거리예술’은 서울의 문화예술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로 부각됐다. 우리 재단은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거리예술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 창작 기지로 2015년 4월에 문을 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세계 3대 거리예술축제인 ‘오리악 축제’에서 우리의 전통 공연을 선보인 ‘모다트’, 도심 속 서울의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펼치는 <거리예술 시즌제>, 전통 재래시장 4곳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시장에 간 서커스>, 춤을 매개로 선유도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댄스 페스티벌 <서울무도회> 등 ‘거리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1년 내내 이어졌다.

07



07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문화예술

2013년에 시작해 서울에 관한 다양한 기억을 채록해 아카이브로 구축한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현재까지 기억수집가 70여 명이 1700여 명의 에피소드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특정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지금은 철거됐지만 직장인의 단골 모임 장소였던 ‘피맛골’, 도시개발 속에서 장인의 실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오래된 상점과 상인’, 잊고 싶지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1997년 IMF, 서울’, 서울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외국인에게 기억되는 서울’ 등 160건의 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삼풍백화점 구술집 <1995년 서울, 삼풍>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도 펼쳤다.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낸 <응답하라! 1988>이 몰고 온 복고 열풍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서울시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을 모아줘>는 일상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해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집 대상으로는 기록물, 개인 애장품, 상업, 특정 사건과 인물 등 다양하게 모아졌다.

08 내부자가 아닌 기부자를 꿈꾸다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을 살찌워요’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켰다.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리는 동안 서울광장에는 오케스트라 캐릭터를 한 30마리의 돼지가 모여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축제 레시피를 즐기는 자판기로 좀 더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법을 알게 되는 동시에 예술에 기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이렇게 2016년에 모아진 기부금 총액은 8억 5921만 9308 원에 달한다.

08



09

10



09 다시 태어나는 예술공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아지트, '서울예술교육센터'가 10월 8일 양천구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도물을 저장하던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 이 공간은 예술과 놀이로 아이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상상 공간이자,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이 밖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시 창작공간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 흥은예술창작센터에서 재탄생한 서울무용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다시 태어난 서울예술치유허브의 경우는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립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10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서울 서울문화재단 제4대 주철환 대표이사 취임

2004년 서울문화재단 출범 이후 네 번째 대표이사가 9월 1일에 취임했다. MBC <퀴즈아카데미> <우정의 무대>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으로 잘 알려진 스타 PD 출신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계에 몸담았으며, OBS 사장과 JTBC 대PD를 역임했다. 스스로 재단이 일곱 번째 직장이라고 말할 만큼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현재까지 15권의 책과 2장의 앨범을 낼 정도로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전도사로 앞장서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밝힌 인사말에서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을 가늠할 수 있다. “혼자 더 잘살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함께 다 잘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다이즘’이라 부른다. 2017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재단의 사업에 ‘더다이즘’을 녹여나갈 것이다. 그렇게 주철환 대표이사는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방향을 한 마디로 외쳤다.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서울을 연출하겠습니다.” ^{30/24}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는 과하게 화려한 색상과 오브제, 강박적인 대칭 구도가 낯설고 기이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백승민 작가의 <SCENE #6>과, 어둠과 거친 질감만 남은 숲의 풍경을 통해 깊이 침잠하는 사색의 순간을 관객에게 전하는 서윤아 작가의 <젖은 숲>을 소개한다.



백승민

SCENE #6

캔버스에 오일
60×150cm
2010
420만 원



서윤아

젖은 숲

종이에 목탄

181.8×227.3cm

2013

450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바람난 미술’×다음(Daum) 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1

경희대 앞 ‘문화공간 8번가’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경희대 정문 앞 골목길에 위치한 문화공간 8번가는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다. 전시공간이나 무대가 절실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전시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기동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인근 종합병원,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로 언제나 북새통을 이룬다. 근처에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학이 여럿 있지만 도심의 변화가와 거리가 멀어 상권이 발달한 데 비해 문화적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었다.

문화적으로 뚜렷한 색채가 없던 이곳에서 문화공간 8번가는 단연 눈에 띄는 공간이다. 3층 주택에 컨테이너를 덧붙인 독특한 건물 외관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카페 곳곳에는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본격적인 전시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전시공간에서 진행된다. 공연을 위한 작은 무대도 1층에 들어서 있다.

오래전 라이브 퍼브로 문을 연 이곳은 약 5년 전 카페 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동양화가로 활동하며 이곳을 이끌고 있는 원상호 대표는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좋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공간 8번가’를 만들었다.

꿈꾸는 예술가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문화공간 8번가는 한동안 갤러리를 중심으로 공간을 운영했다. 전시 작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보통 1년에 3~4회 공모를 진행한다. 관람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작가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무료 대관, 전시 홍보, 엽서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시 작가들의 연령대나 활동 범위는 다양하다. 작품의 장르에도 제한이 없지만, 많은 손님이 드나드는 카페의 특성상 파손 우려가 있는 설치 작품은 배제하는 편. 회화나 사진 등 평면 작품 전시를 주로 한다.

지금은 자리를 잡은 '목요일 공연'이 시작된 것은 송광찬 팀장이 합류한 이후의 일이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문래동 사진공간 빛타래를 운영했던 송광찬 팀장은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며 문화공간 8번가와 연을 맺었고, 우연한 계기로 4년 전부터 이곳에서 전시와 공연 기획을 전담해왔다. 송 팀장은 라이브 퍼브로 운영되던 당시의 음향 장비가 그대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활용한 소소한 공연을 기획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공연이 벌써 2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저녁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진행되며, 메일로 신청을 받는다. 무대에 서기를 꿈꾸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 조건을 두지는 않지만,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고 무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두고 있다. 라인업은 매주 변경되지만,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팀도 있다.

공연 역시 카페를 찾아온 손님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뮤지션에게 지급할 공연비 등을 고려해 유료화를 고민해봤지만, 오던 관객도 안 올 수 있다는 뮤지션들의 우려를 감안해 무료 공연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문화공간 8번가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일상적으로 드난다. 카페를 겸한 공간이라는 이곳의 특수성은 많은 사람에게 공

연과 전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의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이 '불특정 다수'가 전시 또는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광찬 팀장은 공연 감상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회기동 일대의 특성상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고 설명한다. 관객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1~2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공연하는 날도 있었고,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큰소리로 대화하는 관객들도 있었다는 것. 지금은 8번가를 아는 이들이면 '목요일에 공연이 열리는 곳'이라고 인지할 만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지난했다.

다른 고민도 남아 있다. 문화공간 8번가는 문화예술이 태어나고 확산되는 장이었던 '살롱'이 그렇듯, 카페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종종 한계에 맞닥뜨리곤 한다. "대학가 인근의 카페는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건 학교가 자율적인 학습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학점 관리나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간 8번가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은 대개 이런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송광찬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8번가가 회기동 일대의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어느덧 목요일 저녁 공연도 체계를 갖췄고, 이곳에서 전시한 작가가 100명에 달할 만큼 기반이 다져지고 있어요. 여기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일 없다면 앞으로도 문화공간 8번가는 전시와 공연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1 문화공간 8번가에서는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 3 8번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목요일 공연' 현장.



글
조아라

사진 제공
문화공간 8번가
www.8street.co.kr

연극 <남자충동>과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주목받은 초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다

초연 당시 각종 연극상을 휩쓸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화제의 연극 2편이 새해 다시 무대에 오른다.

‘다시 돌아와 관객 앞에 선’ 작품들은 화려한

수상 경력 외에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관객의 마음을 끌고 있다.



<남자충동>은 스크린에서 주로 활동해온 배우 류승범이 14년 만에 선택한 연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15년 초연한 고선웅 연출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최근 ‘최순실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언급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힘에 대한 남자들의 강박관념을 다룬

1997년 초연작

<남자충동>, 2. 16~3. 26, 대학로 TOM 1관

조광화가 연출한 <남자충동>은 1997년 초연 당시 각종 상을 받으며 그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힌 작품이다. 당시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과 대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등을 휩쓸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초연 당시 한국연극협회가 상반기 연극평론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작품 부문, 연출 부문, 남·여 연기자 부문, 극작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남자충동>은 힘에 대한 남자들의 강박관념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장정’은 영화 <대부>에서 마이클 콜레오네 역을 맡은

알 파치노를 무척 좋아하는 인물이다. 영화 속 알 파치노처럼 힘을 키워 조직을 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을 평생일대 임무로 생각한다. 험하고 거친 건달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깊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 ‘이씨’는 노름에 빠져 가족은 뒷전이다. 그런 아버지에게 질색해 어머니 ‘박씨’는 이혼을 선언한다. 그 밖에 섬세하고 유약한 동생 ‘유정’, 연인 ‘단단’, 막냇동생 ‘달래’ 등 주변 인물과 ‘장정’의 갈등을 그리며 ‘강한 남성’에 대한 남자들의 집착과 강박을 이야기한다.

이번 무대는 배우 류승범의 연극 무대 복귀작으로도 주목받는다. 류승범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것은 첫 출연 연극인 2003년 <비연소> 이후 14년 만이다. 주인공 ‘장정’ 역을 맡은 류승범은 <남자충동>의 대본을 보자마자 작품에 반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과 영화 <마스터> 등에 출연한 배우 박해수가 ‘장정’ 역에 더블캐스팅됐다. 아버지 ‘이씨’ 역에는 손병호와 김뢰하가, 어머니 ‘박씨’ 역에는 황영희와 초연 멤버였던 황정민이 번갈아 출연한다. 극작가 겸 연출가 조광화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기도 하다.



2

중국판 햄릿을 원작으로 한

2015년 최고의 화제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 18~2. 12, 명동예술극장

2015년 초연 당시 연말 각종 연극상을 휩쓴 작품이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연극 베스트'와 동아연극상 대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대상 등 주요 연극상을 받았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는 당시 "올해 최고의 연극이라 꼽을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와 배우들의 열연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선웅 연출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 원나라 시대 작가 기군상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중국 춘추시대 사건을 연극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중국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기군상의 원작 〈조씨고아〉는 18세기 유럽에 소개되며 '중국판 햄릿'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드라마와 영화 등 여러 형태로 극화돼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스토리이기도 하다. 천카이거(陳凱歌) 감독의 2010년 영화 〈천하영웅〉도 〈조씨고아〉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2013년에는 중국 CC(중국중앙)TV에서 41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행도 마다치 않는 장군 '도안고'는 왕의 총애를 받는 '조순'을 역적으로 몰아 조씨 가문 300여 명을 몰살한다. 그러나 주변 인물의 도움으로 조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고아'가 살아남고 '도안고'는 '고아'의 정체를 모른 채 양아들로 삼는다. 장성한 '고아'는 이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복수를 고민한다.

'도안고' 역에 장두이, '정영' 역에 하성광, '조순' 역에 유순웅 등 초연 당시 무대에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임흥식을 제외하고는 초연 무대의 출연진이 그대로 출연한다. 당시 '공선저구' 역으로 출연했던 임흥식은 자신의 분량을 모두 연기하고 퇴장한 뒤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재공연에서는 정진각이 공선저구 역을 맡았다.

초연 당시 입소문이 퍼지면서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표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재공연을 앞두고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고선웅 연출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씨고아〉 작품이 너무 좋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
〈남자총동〉에서 주인공 '장정' 역에 캐스팅된 배우 류승범(왼쪽)과 박해수.

2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2015년 초연 당시 공연 모습.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사진 제공
프로스랩, 국립극단

전시 <장영혜중공업>과 <요세프 쿠델카>

날것 그대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현실

길들지 않은 예술과 마주했을 때 가슴 뛰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지.

새해 포문을 연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의 <장영혜중공업>전은 오랜만에 그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다. 장영혜(한국)와 마크 보주(미국) 부부로 이뤄진 웹아티스트 팀 '장영혜중공업'은 우리가 처한 정치사회 현실의 이야기를 가장 직설적으로, 그리고 가장 감각적인 방식으로 풀어 대중에게 내놓았다. 체코 출신 프랑스 사진작가 <요세프 쿠델카>전은 좀 더 은유적으로, 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현실을 반추한다. 한국 첫 개인전에서 소개된 쿠델카의 초기작 '집시' 시리즈 흑백사진들은 1970~80년대 유럽 집시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이민자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1
장영혜중공업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
전시 전경
(사진: 김상태, 2017).

2
장영혜중공업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정치인들
-무엇을 감추나?>
전시 전경
(사진: 김상태, 2017).

3
<모라비아>(1966)
©요세프 쿠델카/
매그넘 포토스.

4
<보헤미아>(1966)
©요세프 쿠델카/
매그넘 포토스.



거친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감각적인 영상

<장영혜중공업>전, 1. 6~3. 12, 아트선재센터

전시장 3개 층에 작품이 1점씩 설치돼 있다. 한국어와 영어 2채널로 분리된 화면에는 고딕체의 텍스트만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다. 1층 '불행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다', 2층 '삼성의 뜻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3층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정치인들-무엇을 감추나?'라는 주제로 각각의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를 10분 안팎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걸치다가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결국 총동적인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불행과 비극을 그다지 놀라울 것 없다는 건조한 말투로 풀어놓는대거나, 삼성병원에서 태어나 삼성아파트에서 살면서 삼성을 다니다가 삼성장례식에서 생을 마감하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삼성공화국에서의 삶을 마치 라임을 맞춘 랩처럼 유희한다.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행위로 정치인들의 '기만'을 은유하며, 결국 그들의 오래된 기만에 눈을 감고야 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조는 사사로운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던져진다.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라는 대목은 머리를 매만지려고, 피부 미용을 위해 다양한 '보안손님'이 드나들었다는 인왕산 끝자락 푸른 집을 연상케 한다.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말 한마디뿐인가, 우리는 그런 바보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뜨끔해진다. 정말 우리는 그랬고, 또 그렇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센' 메시지들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 더없이 모던하고 감각적이라는 점은 놀랍다. 직접 제작한 드럼 비트 위주의 사운드에 맞춰 표출되는 텍스트와 저퀄리티 이미지들의 조합은 사뭇 유튜브적이고 또한 컨템포러리하다. 보고 듣노라면 이 넘치는 위트와 통렬함 사이에서, 이들의 유쾌한 줄타기에 함께 올라타고 싶어진다.

<장영혜중공업>은 이번 개인전의 주제를 '세 개의 비디오 자습서로 보는 삶'이라고 붙였다. 국정농단이니, 또는 블랙리스트니 하는 말이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기 이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준비했다니, 이 예술가들의 예지력이 새삼 놀랍다.

미술관 외벽에 원색, 보색의 볼드체로 '삼성의 뜻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마치 과격 시위대의 구호 같은 포스터를 보더라도 놀라지 말자. <장영혜중공업>의 미술관 외벽 배너 작업 일부다. 전시장에 놓인 리플릿도 꼭 챙기자. 이 또한 작품의 일부이니. 작가들을 만나고 싶다면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하면 된다.



오래된 사진에서 읽히는 삶의 보편성과 고단함 〈요세프 쿠델카〉전, 2016. 12. 17~2017. 4. 15, 한미사진미술관

1968년 구소련의 프라하 침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듬해 ‘로버트 카파 골드 메달’을 수상한 ‘익명의 프라하 사진가’, 미국·유럽 자유 보도사진 작가그룹인 ‘매그네포토스’ 회원인 체코 출신의 프랑스 사진작가 요세프 쿠델카(78)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60년대부터 찍어온 ‘집시’ 시리즈 전작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집시’ 시리즈는 쿠델카의 초기작이다. 국내 작가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작가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감성이 담긴 작품이 바로 이 ‘집시’ 시리즈다.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쿠델카는 제빵사인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사진을 접했다. 프라하 공업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항공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연극무대 사진을 찍던 그는 1967년 체코 등 동유럽 집시들을 찍은 ‘집시’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전업 사진가의 길을 걸었다.

1968년 구소련의 프라하 침공 현장을 찍은 사진을 당시 ‘매그네포토스’ 대표이던 엘리엇 어윗에게 비밀리에 전달했고, 이 사진들이 미국 CBS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익명’으로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1970~80년대 ‘무국적자’를 자처하며 그는 집시는 물론 유럽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후 1987년 프랑스에 귀화, 프랑스 문화부에서 주최한 ‘국립 사진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2014년 미국 시카고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연 그는 이번 한미사진미술관 전시에도 이어, 내년에는 ‘망명’ 시리즈로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쿠델카는 왜 집시를 찍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무언가를 즐기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이유를 모를 때 더 즐길 수 있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인간의 삶과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 집시는 매우 강렬한 피사체였다”고 했다.

쿠델카의 ‘피사체’로서 집시들은 현실 속 집시들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고단한 현실 속의 삶은 흑백 프레임 안에서 삶을 더 그렇게 관조하는 여유마저 느껴질 정도다. 작가는 “작가의 가치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객들이 각자의 경험에 비춰 해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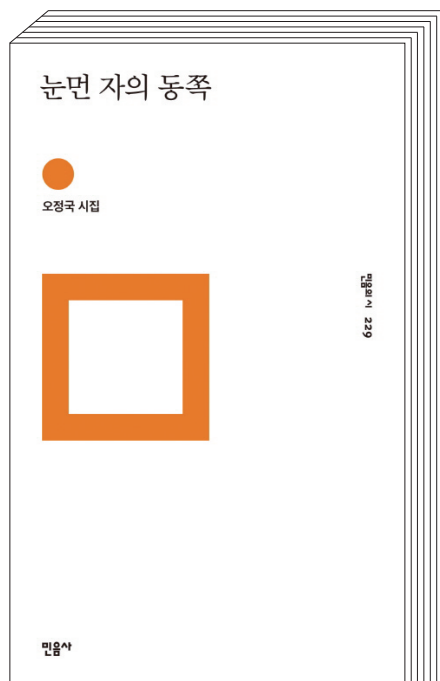
글
김아미
뉴스1 기자

사진 제공
아트선재센터,
한미사진미술관

시집 <눈먼 자의 동쪽>과 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

겨울로 떠나는 따뜻한 여행

한 나그네가 칼바람 부는 겨울에 어깨 웅크리고 객지를 지나간다.
냉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코트 깃을 단단히 여민다.
그때 나그네는 길가의 집에서 따뜻한 모닥불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본다. 창 안을 들여다보니 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겨울에 어디선가 있을 법한 광경이다.
한편으로는 황량하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겨울의 두 모습을 각각 보여주는
책을 소개한다. 오정국 시인(한서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의
시집 <눈먼 자의 동쪽>과 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장편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다.



처연하고 황량한 겨울을 담은 한 편의 여행기 같은 시집

<눈먼 자의 동쪽>, 오정국 지음, 민음사

오 시인의 이번 시집은 한 편의 여행기다. 그가 직접 한겨울에 내
설악(강원도 인제군과 가까운 설악산 지역), 비슈케크(키르기스
스탄의 수도), 제주도를 여행하며 지은 시들을 모았다. 시집은 강
원도의 굽이친 계곡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 법한 터널에 대한 시
로 시작된다. 그가 보기에 해 질 무렵의 터널은 산속에 조용히 웅
크린 산짐승 같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끌려가는 저녁 해가 있다
그리하여 / 고요하게 입을 다무는 터널 // (중략) // 터널 밖에는 /
눈이 녹는 철길이 있고 / 지평선을 딛고 저녁노을을 빛내 주는 햇
덩이가 있는데”(‘터널 밖에는’ 부분).

이어 시인은 내설악을 여행하며 느낀 감상을 20편에 달하
는 연작시 ‘내설악일기(日記)’로 풀어낸다. 내설악 주민의 삶, 도
시에서 온 관광버스 행렬, 산짐승의 생존 분투기 등을 담았다. 그
중 단연 으뜸은 깊은 밤 황량한 설산 풍경에 대한 시다. “얼음장
의 달빛들, 물고기 비늘처럼 / 퍼덕이더니, 고요로써 고요를 쓰다
듬듯 / 고요의 머리카락을 빗겨 주었다 / 오싹한 기운이 옆구리
를 찔렀지만 / 귀기(鬼氣)서린 저 풍경이 / 이승의 한 조각 아름
다움이라면”(‘목에 비수를 들이대듯-내설악일기·11’ 부분).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이역만리 낯선 나라에서 시인은 다시
한 번 느낀다, 자연의 섭리가 칼날을 버리고 있는 저곳은 인간에
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임을.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었다 지척
모를 안개가 / 산 계곡을 뒤덮어 세 번째 산행도 벼랑 끝에 서게
됐다 // (중략) // 여기까지 허락된 발걸음인 것 / 범접 못할 비경
은 절대적 영역인 것”(‘어느 생의 언젠가를-비슈케크일기·5’ 부
분).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내 목숨의 허기를 좇아 참 많이 떠돌
았다”며 “그 황홀하고 처연했던 중얼거림을 여기에 담는다”고 말
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식탁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 김다은 지음, 작가

김다은 작가의 소설은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풍습에 대한 얘기로 시작된다. 작가에 따르면 폴란드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 식사 자리에 빈 접시와 빈 의자를 하나 갖다놓는다. ‘혹시 올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 마련해두는 여분의 자리다. 김 작가는 지난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 풍습에 대해 알게 됐다. 묵고 있던 숙소의 주인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에 초대해 실제로 이 ‘빈 자리’에 앉았다. 당시 받았던 감동이 이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됐다.

소설의 주인공인 폴란드 할머니 아네타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한 아이를 계속 기다린다. 아네타는 50년 전 폴란드 정부가 비밀리에 설립한 ‘프와코비체 양육원’에서 보육교

사로 일한 적이 있다. 이 양육원은 당시 폴란드가 ‘사회주의 형제애’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 전쟁고아를 데려다가 보살핀 곳으로 1950년대에 실존했다. 아네타가 기다리는 아이는 당시 보육원에서 만난 북한 소녀다.

한편 소설 속 한국 여성 리아는 “폐허가 된 영혼을 재건하겠다”며 폴란드에 간다. 한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아네타를 만나 그의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다. 이 자리에서 리아는 폴란드 특유의 ‘여분의 빈자리’에 앉는다. 아네타는 리아를 보고 양육원의 그 소녀가 돌아왔다고 믿는다. 아네타는 과거 보육원의 소녀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슬프고 아름다운 사연을 털어놓는다. 작가는 “전쟁으로 도시의 85%가 파괴된 바르샤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들 속에 따뜻한 인간성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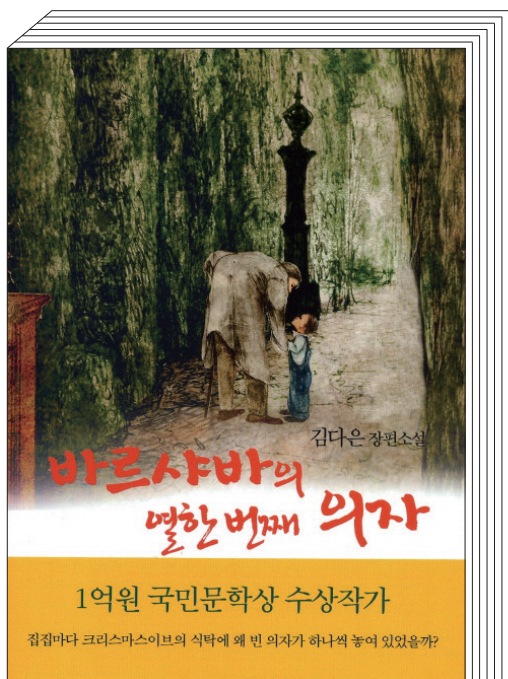
겨울 여행을 부추기는 문학

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요즘 유행하는 난해한 시를 애써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잘 찾아보면 시에 익숙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오 시인의 시가 그런 작품 중 하나다. 힘을 빼고 천천히 읽으면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나와 코드가 맞다면 시인의 감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다. 김 작가의 책은 가슴 뿌듯한 체험이 집필의 동기인 만큼 작품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다. 한 편의 크리스마스 미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두 작품 모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겨울 여행을 떠나고 싶게 한다. 오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 눈 덮인 황량한 산악 지역을, 김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크리스마스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진다. 이 책들을 들고 겨울휴가를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한겨울

글
양병훈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민음사, 작가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좋아해서 시작한 춤, 너무 바빠 지니 설렘도 열정도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전공하고
있는 21세 학생입니다. 저는 새
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것

보다는 도전하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 좋아하는 ‘춤’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연습도
찾아지고, 레슨도 많아지면서 시간을 쪼개도 겨우 자는
시간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미술관의 그림,
풍경 속 하늘과 나무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차이는 너무 크더라고요. 똑같이 좋
아하는 것인데, 해야 하는 것을 할 때엔 설령 그게 ‘춤’이
라고 해도 이제는 설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확신도 점점 없어지고 자신감·자존감도 낮아지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꽉 막힌 상자 같
은 생활 속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느낌뿐인걸요. 새로운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물론 춤추는 순간은 행
복하다고 느끼지만... 다시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할
때의 ‘나’가 되고 싶는데 그러기엔 너무 바빠요. 바쁜 게
좋다고는 해도 그저 현상유지를 위한 삶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뽀족한 해답을 바라기보다는, 그
냥 답답했던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하, 좀 더 새로
운 이야기가 저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라도 길 위에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슬럼프는 딸꾹질 같아요. 언제 찾아왔
는지 모르게 불쑥, 평온한 호흡을 방해
하죠. 누구도 제대로 멈추는 법을 모른

예술적 상담소

다는 것도 비슷해요. 숨을 참거나, 물을 마시거나, 또 누군가
가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겁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원인도 해
법도 모른 채 딸꾹질이 멈추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
는 듯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지만
또 언제 요상한 소리를 내며 내 호흡을 흔들며 찾아올지 모릅
니다.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경쟁과 치열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술이 꿈꾸는 미래가 아닌 극복해
야 하는 현실이 되어 외롭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
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답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단
지 같은 고민과 공감을 나누며 서로를 토닥이는, 작은 위안
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일찌감치 겪었던 일입니다. 첫 학기 수업을 듣고,
첫 번째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알아버렸죠. 노력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선천적 재능을 타고난 친구에 비해 나 자신
의 재능이 너무 모자란다는 사실... 이미 그 순간에 미래를
눈치채버렸는지 모릅니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술학교를 다
니는 학생들에게 슬럼프는 훨씬 일찍 찾아옵니다. 이미 너무



<http://bit.ly/ltAX44>

빨리 미래가 결정된 아이들은 너무 앞서 친구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예종과 예고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더 어린 학창시절부터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송고함이 좌절되는 순간을 맞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고괴담: 여우계단〉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주인공을 가리는 오디션 자리. 늘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에게 밀려 솔리스트 자리를 놓친 아이가 토슈즈에 깨진 유리를 넣어둡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친구를 다치게 하는 그 아이보다 깨진 유리에 발가락이 찢기면서도 웃으면서 오디션을 마친 주인공의 모습이 조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감독은 다소 극단적인 그 장면을 통해 내가 꾸는 꿈이 좌절된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입학과 동시에 주연과 조연이 갈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과 승리, 패배와 좌절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하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예술의 미래를 논하는 낭만적 시간을 즐길 여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진되고 있다는 기분에 좌절감도 쉽게 찾아옵니다. 흡사 방석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방석에 매끈하게 안착하느냐, 잉여가 되어 그어진 선 밖으로 밀려나느냐 결정되는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빨리, 그리고 자주 벌어지죠.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빨을 드러내는 동료들과 그보다 더 세속적인 교수들 사이에서 드러난 민낯이 보기보다 예쁘지 않아 주춤거리게 됩니다.

다시, 권태에게 길을 묻다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A man takes a job, you know and that job becomes what he is(당신도 알다시피, 한 사람의 일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야).” 치열하게 노력하고, 열정을 다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꿈꾸는 예술가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겠지요. 꿈을 꾸게 했던 예술이 어느새 과제가 되고, 미래의 숙제가 되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묵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 없는 좌절과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골 깊은 권태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길이 끝난 곳에서 여행을 시작해야 하는 나그네일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뚜렷하게 결정하지도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죠. 상투적인 결말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합니다. 갑자기

찾아든 딸꾹질을 멎게 하기 위해서 잔 걸음을 멈추고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 길 위에서 있는지 생각하고 다음 걸음은 어디를 향해 디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은 아마 충분히 성실했고, 앞으로 더 성실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깐 멈춰서 권태와 마주해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겠죠. 나그네라도 길 위에서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것을.



웹진 (춤: in)
choomin.sfac.or.kr

답변
최재훈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자유기고가

소문과 정을 팔던 행상(行商)의 추억

물 한 사발, 덤 한 줌으로 주고받던 정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상인을 행상(行商)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예전에는 여성 화장품을 비롯해 두부, 새우젓, 선지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이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대규모 거래를 하는 행상도 있었고, 소규모로 단골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1〉닭장수.

산 닭을 지게에 진 '닭장수'

사는 게 각박해지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됐지만 전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죠. 행상들은 집 마당까지 불쑥 들어와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물건을 팔고, 정도 나눴습니다. 옛날이 그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상 중에는 〈사진 1〉과 같은 닭장수도 있었습니다. 산 닭을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팔았고, 닭장 위에 장비 주머니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산 닭을 잡아주면 바로 그날 저녁 식탁에 닭곰탕이나 닭볶음탕이 올랐을 겁니다. 무거운 지게를 하루 종일 지고 다니려면 참 고달팠을 겁니다. 사진 속 닭장수 아저씨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거고, 닭 한 마리 팔아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이 동네 저 동네 돌며 "닭 사세요~"를 외쳤을 겁니다.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주부와 닭장수가 닭 한 마리를 놓고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 시절에는 정이 넘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상인에게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대접하면 그 상인은 감사의 뜻으로 물건 값을 흔쾌히 깎아줬습니다.

1959년 한 신문에 실린 '닭 장수 할아버지'라는 동시를 소개합니다. '상자 메고 터벅터벅 고을 길 간다/외줄길 시골 길을 혼자서 간다/상자 속에 닭들이 가웃거리다 "꼬대 꼬대" 하고 물



〈사진 2〉 옛장수.

으면 닭장수 할아버진 대답 없어도 뽕나무 집 꼬꼬가 대답해준 다/꼬대 꼬꼬...마을이라고...’.

옛장수 마음대로 ‘ 짹짹 짹 ’

갓 만든 뜨끈한 두부를 팔던 행상도 생각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모판을 바닥에 내려놓고, 칼로 한 모를 떠주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 선지가 가득 담긴 초롱을 지고 다니던 선지 장수도 있었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쉽게 사 먹지 못 하던 시절 선지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선지 사려~” 소리가 들리면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나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몇 백 원을 주고 선지 한 바가지 사오신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걸어놓은 솔에 익힌 선지를 소금에 살짝 짝어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지금도 그때 먹은 고소한 선지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일찍이 시작됐습니

다. 집에 앉아서 편하게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요즘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뭐든 집으로 배달해주는 세상이 됐지만 말입니다.

〈사진 2〉 속 옛장수(고물수집행상) 아저씨도 그림습니다. ‘ 짹짹 짹 ’ 가위질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이 골목 어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자가 흔하지 않던 1950년대에는 옛이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옛장수 아저씨는 빈 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등 쓸모없는 폐품을 달콤한 옛으로 바꿔줬죠. ‘ 옛장수 마음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옛장수에게 갖다주면 비슷한 양이라도 가위로 쳐서 잘라주는 옛가락의 양이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면 기다랗게 쳐줬고, 때로는 아박하게 옛을 주기도 했습니다.

옛장수의 가위는 무디고 날이 어긋나 가위 본연의 자르는 기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구수한 소리로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영화 칼럼니스트 김정원의 만리동 추억

고개턱에 숨어 시간을 버티는 동네 만리동

필자는 강남에서만 직장 생활을 하다 직장을 옮기면서 만리동에 터를 잡았다. 미숙련 노동자와 기묘한 메뉴를 내놓는 가게들, 살기 팍팍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서울의 다른 속살을 보았다.

칼럼니스트 김정원이 털어놓는 10여 년 전 만리동에 대한 추억이다.

기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팀장이 웬 창고 같은 건물 앞에서 말을 걸었다. “너, 저기 가서 월급이 얼마지 한번 물어볼래?” 그가 말한 ‘저기’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미싱 시다 모집’. 이게 뭐지, 지금은 2002년인데, 갑자기 전태열 열사가 그토록 갖고 싶었다던 대학생 친구라도 돼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대학생도 아니지만.

청담동과 논현동에서 몇 년을 일하며 8,000원짜리 스트로베리 바나나 생과일 주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딸바’ 주스지만 그때는 매우 트렌디한 음료) 따위를 마시다가 만리동으로 직장을 옮긴 나는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그딴 게) 왜 궁금한 건데요.” 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게 뭐지, 지금은 2002년인데, 80년대 학번 운동권이 문건이라도 읊어주는 것 같아, 아 80년대 학번 운동권 맞지.

상상도 못했던 서울의 또다른 속살

만리동은 그런 곳이었다. 고갯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시간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풍경이 바뀌던 곳, 20평대 전세가 몇 억이 넘는 아파트를 지척에 두고, 가건물보다도 못한 창고에서 미국련 노동자들이 실밥과 먼지를 마시던 동네였다.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서 자취를 하던 선배는 아직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이제 관찮은 오피스텔을 얻어도 되겠지만, 선배가 나가면 그 월세가 유일한 수입인 주인 할머니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착한 사람들도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

5년간 만리동에서 일하며 나는 서울살이 10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술하게 봤다.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집 주인은 통닭과 회를 같이 파는 파격을 시도했다는 (처음엔 동료들이 횡집 가서 닭 튀겨달라고 진상 부리는 줄 알았다) 자부심 가득한 아저씨였는데, 이후 구워주는 삼겹살로 메뉴를 확장하면서 만리동 술집의 역사를 다시 썼다.

처음 보는 화장실도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쯤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커다란 나무 상자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변기만 붙여 놓은 줄은 정말 몰랐다. 벌써 찰 대로 찬 상자에 새로운 소변을 공급하고 있노라니, 아아, 소리가 깊구나. 몇 년 뒤 만리장성에서 비슷한 화장실을 발견한 나는 감탄했다, 대륙의 그것에도 뒤지지 않는 만리동의 패기. (그러고 보니 둘 다 '만리'자 돌림... 미안.)

어쨌든 그 후로 나는 참을 만큼 참다 회사로 달려가 불일을 봤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원증을 요구하던 야간 경비 아저씨하고 안면을 텄다. 청담동 화장실에는 헤어 드라이어랑 왁스도 있는데, 이게 뭐야.

살기 팍팍한,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웅크려 살던 곳

하지만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도 있었다. 값이 싸고 기본 안주가 좋아서 자주 가던 연탄구이 고깃집에서였다. 시간이 늦어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심혈을 기울여 삼겹살을 열 맞춰 정돈하고 있는데 술 취한 50대 아저씨가 들어와 연탄집게로 드럼통을 때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해본 적이 없는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는 긴장해서 속삭였다. “그냥 112 누르면 되나?” “놔둬, 아줌마 남편이야.” 선배는 소



주를 한잔 마시고는 덧붙였다. “그냥 같이 사는 거일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내가 몇 달간 날이면 날마다 술을 퍼마시던 대로 번 통닭집, 슈퍼 옆 횡집, 횡집 옆의 바로 그 슈퍼, 고개 위 다른 통닭집 (그 시절 나는 날마다 통닭과 회만 먹었던가 보다...) 주인 아줌마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다. 전부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장사도 잘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왜요? 선배는 다시 술을 한잔 마시고는 말했다. “그렇게라도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지.”

그 선배는 오르막길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생이 평생 내리막... 아, 미안.) 회사가 이미 고개턱에 있는데 구태여 다시 험한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였다. 그런 선배가 후배들을 끌고 고개를 올라 새로 생긴 꿈장어(먹장어) 집에 갔다. 상당히 맛이 없었다. 나는 분노했다. “500g 감량이 절실한 이 시국에 이런 맛없는 걸 먹고 1kg 찌면 선배가 책임질...” 선배는 내 입을 막았다. “여기 주인이 000 출신이야.”

나는 그냥 입을 닫고는 마음먹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거 같은 양념 꿈장어를 구역구역 먹었다. 꿈장어에는 소주인데, 소주보다 비싼 병맥주도 많이 마셨다. 그는 몇 십 년 전 독재 정권에 저항한 지하 조직의 조직원이었다. 그리고 몇 번 가지도 못했는데 그 집은 문을 닫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만리동은 시간을 거스른다기보다 시간을 버티는 동네였는지도 모른다. 숙명여대에서 올라가고 공덕역에서 올라가고 서부지검에서 올라가면, 그 모든 동네의 변화가 미치지 못하는, 숨이 차는 고개턱에 만리동이 있었다. 앞으로만 달려가는 시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이들이 가파른 고개턱에 등지를 틀고 앉아 언젠가 덮쳐올 변화에 먹힐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 거의 10년 만에 만리동에 갔다. 서울의 동네 대부분이 그렇듯 이제는 고층 빌딩으로 뒤덮여 낮은 곳에 있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그 동네에서, 책으로만 알던 대표 한잔을 처음으로 마셔본 이름 없는 오뎅집이 아직 웅크리고 있었다. 대낮이었지만, 나는 작게 빛나는 빨간 간판을 보았던 것도 같다.

글
김정원
캘리그래프,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잡지를
만든다.

그림
Meg

‘빛의 연금술사’ 신카이 마코토가 그려내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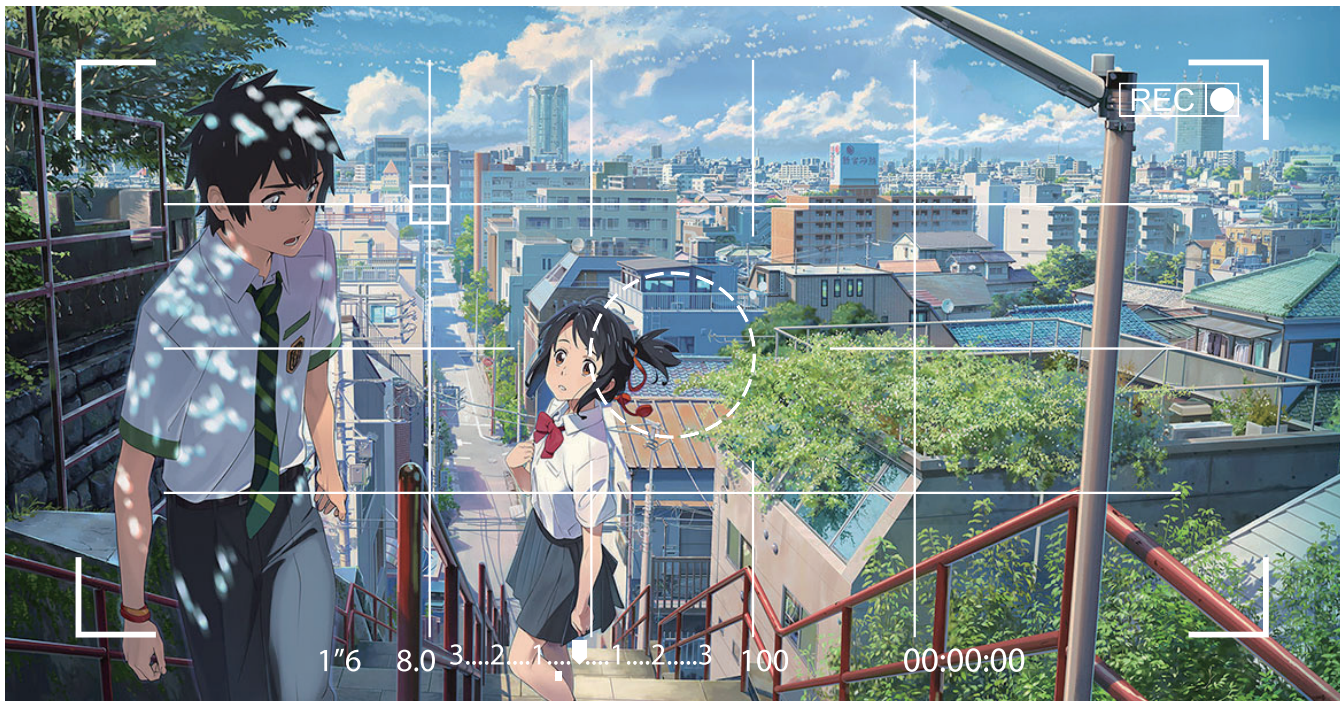
〈너의 이름은.〉이 보여준 재패니메이션의 신세계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흥행 돌풍이 상상치 않다.
쟁쟁한 대작들을 제치고 개봉 직후 12일 연속(1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열성 팬들을 중심으로 특이한 관람 문화마저 생겨나고 있다.
〈너의 이름은.〉이 재패니메이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작년 일본 영화계는 한마디로 〈너의 이름은.〉의 해였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은 일본에서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이어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2위, 영화 흥행 순위 4위를 기록하며 2016년 일본 영화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신카이 감독은 그동안에도 늘 주목받는 젊은 작가였지만 대단한 흥행작은 없었던 탓에 이 작품의 메가히트는 더더욱 이채로운 현상으로 보이기 충분했다. 더욱이 자신만의 서정적인 색채를 고수하며 마침내 이론 성과였기에 일본 영화계는 젊은 감독의 대성공보다 그 성장에 더 많은 갈채를 보냈다.

누구나 품고 있을 인간 본연의 판타지를 담다

지난 1월 4일, 마침내 한국에서도 〈너의 이름은.〉이 선보였다.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홍콩, 중국에서도 연이어 성공한 화제작이었지만 국내 극장가에서는 꽤 오랜 기간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고전을 면치 못한 탓에 흥행을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돌풍은 더더욱 놀랍다. 실제로 흥행 속도 또한 예상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개봉 11일째인 1월 14일에는 200만 관객마저 넘어섰다. 국내에서의 일본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인 〈하울의 움





오직 애니메이션만이 이를 수 있는 경지

흔히 '빛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화는 이를 더욱 우아하게 복돋는 주역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과 이곳의 소박한 삶의 방식을 눈이 시리도록 그려내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미려한 도시를 이와 대비시킴으로써 현실이 머금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때때로 사진이 담아내는 풍경이 진짜 풍경보다 훨씬 아름답듯이 신카이 감독이 담아내는 풍광은 그 자체로 현실이 담고 있는 극상의 판타지와 그대로 맞닿

는다. 그리고 이 풍경은 두 주인공의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히 둘 모두에게 언제고 동경할 만큼 그리운 공간, 그리운 사람으로 존재한다.

인간 본연의 환상을 자극하는 <너의 이름은.>의 마술은 무척이나 매혹적이다. 전작보다 훨씬 쉽고 명료한 판타지를 도입하고 비교적 큰 사건과 위기를 통해 서사의 기록을 크게 만든 점 역시 주효했다. 누구나 입이 가능한 평범한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두드린 <너의 이름은.>은 이성에 대한 누구나의 관심과 기대를 흥미롭게 담아냄으로써 오직 애니메이션만이 이를 수 있는 경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너의 이름은.>이 국내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넘어 일본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오른다면 이는 무려 13년 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최근 몇 년간 국내 극장에서 일본 영화의 인기는 시들했다. 한때 작은 영화가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재패니메이션'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영광의 순간을 떠올리자니 격세지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몇 번이나 은퇴를 반복하며 신작을 들고 나오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신예들이 꾸준히 관객의 마음을 두드렸다. 국내에서도 너른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호소다 마모루(<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아이> 등)를 비롯해 오시이 마모루(<공각기동대>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와타나베 신이치로(<카우보이 비밥> <사무라이 참프루> 등)와 같은 중진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의 다채롭고도 탄탄한 기반을 엿보게 한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곤 사토시(<퍼펙트 블루> <파프리카> 등)의 영향력 또한 여전하다. <너의 이름은.>의 흥행과 더불어 이미 오래전 애니메이션을 최고의 예술로 올려놓은 재패니메이션의 저력이 다시금 국내 극장가에서도 되살아날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된다.

직이는 성>(2004)이 개봉 3주차에 200만 관객을 달성하고 최종 스코어 260만 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기록한 것에 견주어본다면 최종적으로는 국내 일본 영화 흥행 1위의 이름마저 갈아치울 기세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그동안 <별의 목소리> <초속 5센티미터> <언어의 정원> 등 남녀의 섬세한 감정을 아름다운 풍광 안에 담아내는 작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장소가 어디든 늘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과 외로움에 집중했기에 그의 작품은 유난히 인물의 독백이 많고 비교적 잔잔한 서사가 주를 이룬다. <너의 이름은.>의 정서도 전작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타지를 가미해 좀 더 색다른 지점을 만들어냈다. 도쿄에 사는 고등학생 다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쓰하는 어느 날부터 서로 몸이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반복한다. 타인이 되어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점차 서로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된다.

작품 내에서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호명되는 '연인' '이어짐'과 같은 단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감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형상화한다. 거칠게 말해 남녀의 몸이 바뀐다는 흥미로운 설정은 신카이 감독에게겐 순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그는 늘 이야기하던 주제를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한 두 주인공의 관심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타인이 되면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평생의 연인을 기다리는 듯한 누구나의 그리움과 그 그리움에 기대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외로움에 집중함으로써 작품의 판타지적 요소는 모든 인간이 품고 있을 본연의 판타지와 멋지게 조우한다.

글 강상준

<DVD2.0> <FILM2.0> <IMBC> <BRUT> 등의 매체에서 줄곧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를 썼고, <매거진 컬처> <젊은 목소리>를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현재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프리랜스 편집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 제공
<너의 이름은.>
공식 홈페이지
your-name.kr

서양음악 중심으로 획일화한 세계 음악

아마존에는 불협화음이 없다

음악을 들을 때 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
편하게 들리는 소리는 그동안 들어온 익숙한 소리이고,
거슬리는 소리는 생소하고 의미를 알기 힘든 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편한 소리는 자연의 법칙에 더 충실히 따르는 소리일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예를 들어, 피아노 건반상의 도-솔에 해당하는
음의 간격(완전 5도)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편한 소리,
즉 협화음으로 간주하고 화음에 이용한다.

‘불협화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원시 부족

그렇다면 협화음이 아닌 음 간격, 즉, 불협화음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귀에 거슬리는가? 피아
노 건반으로 미와 파(단2도)를 동시에 친다고 상상해보자.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도와 솔을 동시에 쳤을 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다가 음을 틀렸을
때 주로 나는 소리가 이런 불협화음이고, 많은 사람이 이를 즉시
알 수 있다. 인간의 귀가 협화음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
럽고 당연한 이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
이라고 여길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가 그렇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아마존의 부족(볼리비아의 오지에 사는 치마네이
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들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별할 줄 알지만, 어느 것이 더 듣기에 편하냐는 물음에는 반응
이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는 불협화음도 협화음과 똑같이 편안
하게 들린 것이다. 실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각 실험을 했을 때 모두 정상이었고, 웃는 소리와 놀라서
내는 ‘헉’하는 소리 중 어느 것이 편안하게 들리는지 조사했을 때
실험 대상자 모두 웃는 소리를 선택했다.

서양음악에서는 도와 파#의 간격, 즉 증4도 음 간격을 ‘악마
의 음정’이라고 터부시해왔다. 새로운 화음을 만들고 스케일을 바

꿀 정도로 음악사에 미친 영향이 컸던 이 불협화음도, 결국 자연적
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에서 파생된 특정 시대의 금기였던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협화음은 우연의 산물

서양음악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듣는 화음에 가장 자주 쓰이는 음
정인 3도(도와 미, 또는 미와 솔의 간격)가 중세 서양음악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여겨졌다. 만약 중세의 음악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로 날아와 가요를 들으면 많은 소절에 쓰인 ‘불협화음’ 때
문에 음악을 엄청난 소음의 집합체로 느낄 것이다.

아마존의 치마네이족은 서양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다
시피 한 몇 안 되는 부족 중 하나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이니
TV나 라디오로 대중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들이 사는 곳으
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따라 카누를 타고 가야 한다.

치마네이족은 노래를 혼자 부르는 문화만 있다. 그들의 음
악에는 합주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
퍼질 일이 없고, 화음도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 음 간
격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아예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화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음악만을 접한 사람이 이제는 지구상
에 많지가 않아서 이 연구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으로 귀의 편견을 깨야

협화와 불협화에 대한 이런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음악가들이 추구해온 '좋은 소리'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좋은 소리'라는 말 자체가 미학적으로 논란이 많긴 하지만, 화음의 성질로만 생각해봤을 때, 좋은 화음, 협화음이 과연 추구해야 할 화음인가, 그리고 불협화음은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대상인가, 그렇다면 그런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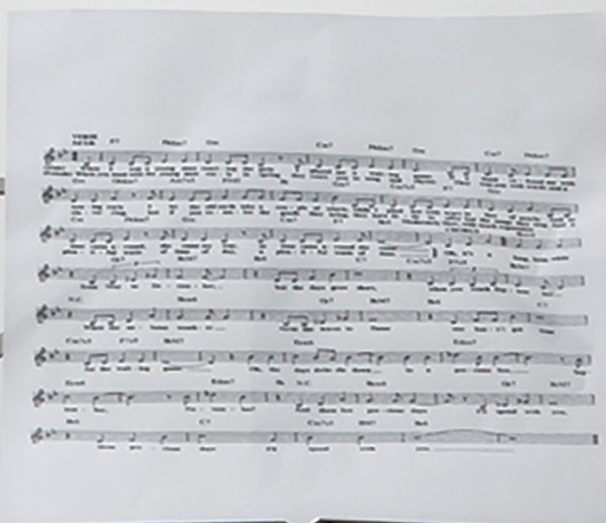
그동안은 자연의 법칙에서 파생된 배음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음정(옥타브, 5도, 3도 등)을 협화음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서양음악 작곡의 역사는 이 음정들을 다루는 방법의 변천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에서 파생된 마땅한 원리가 아니라면, 지금 인류가 협화음으로 생각하는 소리들을 선호하는 것

은 순전히 역사적인 우연인 것이다. 마치 서양식 옷 입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처럼 서양음악에서 파생된 원리로 쓰인 대중음악이 세계화를 통해 보급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각 나라의 전통음악에도 영향을 미쳐 이제는 피아노 조율법과 다른 방식으로 조율된 음악을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에 의한 귀의 획일화인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년배 작곡가들과 농담으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들려줘서 편견 없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당장 생후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필자부터 이 연구 결과를 접한 이후로 동요CD를 치우고 판소리와 인도 전통음악 CD를 틀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부터 너무 서양음악에만 국한된 편향된 음악 세계만 접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쓰기를
즐긴다.

블로그
jagto.tistory.com





서울공예박물관 크래프트 그라운드

북촌 지형의 회복

옛 풍문여고 일대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다.

별궁이었다가 양반집이 되고, 학교로 바뀌었던 이곳은

새로운 도시 문화가 움트는 공공의 광장으로 다시 한 번 변모할 예정이다.

경복궁에서 창덕궁에 이르기까지 북촌 일대에는 근대화 이후 학교가 여럿 지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1933년 경성의 학전문학교 외래진료소로 지어진, 엄밀히 보면 의대 건물이었다. 그 후 기무사로 쓰이며 정치적 오욕이 새겨졌지만, 현재는 현대미술관의 기프트숍과 학예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원 과정에서 시멘트를 벗겨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스타일의

붉은 벽돌 벽과 콘크리트 띠장으로 된 수평성을 되살렸고, 건물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뒤, 옛 건물은 외관을 바꾸는 리모델링 없이 내부만 바뀌서 정독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다. 기숙사 건물이던 빨간 벽돌의 화동랑도 서울교육문화관으로 바뀌어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화동길을 따라 이어지는 높이 4m의 옹벽을 허물어 북촌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 운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다소 권위적이었던 학교가 다정한 공공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예술 공공공간으로 변화하는 풍문여고 터

최근 북촌과 그 주변 지역은 거주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따라 기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에서 감고당길로 내려오는 길에 있는 풍문여고도 이전했다. 현재는 서울시가 그 땅을 매입해 서울공예박물관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쪽에 위치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주거지였는데, 소나무가 많아 송현(松峴)이란 이름을 얻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식산은행원 숙소로 쓰이다 광복 이후엔 미대사관 직원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한진그룹 소유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한류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곳에 문화공간이 들어선다면 현대미술관, 앞으로 들어설 서울공예박물관과 더불어 뮤지엄 트라이앵글(Museum Triangle)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풍문여고 자리는 옛 안동별궁 터로 궁 동쪽의 종친부와 더불어 왕가의 안거였던 곳이다. 2006년에는 돌담을 복원해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 공간을 21세기의 예술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의 단절된 시간과 골목길을 엮는 다스곳한 마당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주변의 공공 문화시설과 다양한 공간은 연속되는 선과 면, 그리고 건축적 볼륨으로 이어져 근대화 이후 단절된 시공간을 공공의 장소로 다시 엮어준다. 인사동길에서 시작되는 보행길의 흐름은 남북으로 이어지며, 높은 담을 낮추고 새로 제안되는 남쪽의 아트플랫폼은 도시의 불확정적인 공공공간을 마련해준다. 또한 북쪽의 연지, 후정의 공간은 돌담을 돌아서서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정원이 된다. 의도된 질서보다는 땅에 축적된 역사를 엮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질서가 도시의 시간 연결체가 되는 것이다.

오래된 은행나무는 궁의 뒤편에 있다. 북쪽의 높은 메 아래에는 연지가 있어서 운치를 더했다. 은행나무 동산은 원지형을 회복하며 서서히 감고당길로 경사를 지어 내려오는 곳이며, 계단과 자연이 어우러진 화계를 만들어 뒷동산이 회복된다. 뒷동산에서 동관 밑의 필로티(Pilotis)를 통해 북촌을 내려다본다. 운동장은 윤보선길의 레벨에서 학교 레벨에 맞추어 아트플랫폼을 만들고 박석을 깔아 광장으로 사용한다. 마치 종묘 정전의 월대처럼 낮에는 사람들도 북적이고, 밤에는 별을 보는 곳이다. 광장은 길이자 마당으로서, 향후 대한항공 부지 개발 시 공공 보행공간을 연장하는 너른 공간이다. 주말에는 프리마켓으로 북적이고, 한 해에 한 번은 가례 행사가 치러진다. 구석구석 남아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골목길을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비움은 채움이 되며, 동서로 연결되는 공공공간을 만든다.

역사의 흔적에서 도시재생의 원리를 찾다

감고당길에서 내려오다 만나는 사고석담의 모서리는 담장의 기단석으로 쓰이는 석재 3개를 바닥에 묻고 보이는 않는 장대석 위에 수직으로 쌓아 해학적으로 보강했다. 이렇듯 대지에서 찾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은 도시의 고고학적 깊이를 더하므로 보존·유지한다. 더 내려가다 보면 사고석담이 콘크리트벽으로 흉하게 끊어진 부분 아래에 남은 문지방이 있다. 아마 별궁의 후정을 드나드는 뒷문이었을 것이다. 콘크리트벽을 걷어내고, 그곳을 후정을 바라보는 창으로 변용한다. 옛것에 대한 오마주다.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 모인 예전의 연지는 원래의 위치에 복원되어 판판했던 학교 땅에 촉촉한 기운을 더하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위계를 설정한다. 둔덕, 돌담, 은행나무, 연지 등 땅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고고학적으로 재발견되며 도시재생의 원리가 되었다.

학교 건물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며, 꼭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는 새로운 코어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땅과 더불어 새롭게 발견되는 공간의 깊이를 더한다. 창은 회랑이 되고, 필로티도 되고, 큰 동선 프레임도 된다. 학교 건물은 대지의 연결과 실내의 필요에 의해 매스를 비우는 형국으로, 은행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1, 2층을 덜어내기도 한다. 동그란 정보관은 다양한 두께의 루버로 마감되어 마치 열레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세미나, 체험공방, 도서관 등의 공유공간으로 변모한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말기, 20세기의 근대화 등을 거치오면서 이 땅과 그 주변은 변화를 감내해왔다. 위정자에 의해 터가 정해지고 별궁이 되었다가 양반집이 되고 학교로 바뀌는 등 그 나름대로 공공의 길을 걸어왔다. 역사도시 경관 디자인의 흐름을 타고 만들어진 돌담이 운치를 더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공공화는 아니었다. 도시화, 개발에 의한 사유화로 궁과 종묘를 잇는 길 사이에 감돌던 정신적 기운은 약해졌으나, 21세기에는 그 단절을 새로운 길로 잇는 지형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보행을 위해 과감히 담을 허물고 바닥을 만들어 지형을 살려주는 작업은 거대한 청사진보다는 새로운 도시 문화와 정신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소박한 배려로부터 시작됐다. 사회적 비용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1 북촌의 입구 감고당길. '서울여성공예 창입대전'에서 수상한 수공예 작가들이 참가하는 판매, 전시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 2 서울공예박물관 주 투시도.

글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쇄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한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사진 제공
페이스페이스, 송하엽



등장인물 남1(60) | 1980년 당시 군인이었던 환자

여1(20) | 가수 지망생

때 현재

장소 정신병원

남1은 의자에 앉아 있고 여1은 옆에서 있다.

테이블 위에는 상자가 놓여 있다.

여1 안녕하세요. 아저씨. (사이) 상자를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남1 어허.

여1 상자를 건드리지 못하고 물러선다.

여1 아저씨. 저 기억 안나세요? 저번에 제가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여1 상자를 열기 위해 다가서는데 남1 막으며

남1 어허 누구신데. 왜 이러실까.

여1 진짜 저 기억 안나세요? 저번에 봉사 왔을 때는 아저씨 군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남1, 돌아서 앉는다. 상자를 품는다.

여1 아저씨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밖에 아저씨들이랑 카드게임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혼자 병실에 있으면 안 돼요.

남1 정신병자랑 안 놀아. 어디 네 노래나 불러봐라. 나한테 불러줬다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기까지 와서 노래하려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

여1, 쭈뼛거리며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남1 (웃음) 판을 깔아주니까 못 하는구먼. 불러준 거 맞아? 가수 되려는 거 아니었나봐? 말만 많아가지고 정작 시키면 못해. 집에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여1 집에 못가요. (사이) 아저씨 운동하러 가요.

여1, 남1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한다.

남1 싫다고! 너는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여1 봉사하러 왔잖아요. 운동해야 다 낫는데요.

남1 딴 사람한테가. 난 조만간 병원 나가.

여1 여기를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병원을 어떻게 나가요.

남1 네가 뭘 알아.

여1 기억 안 나죠?

남1 기억나. 내가 왜 병원을 못 나가.

여1 그럼 얘기해봐요. (웃음) 기억 안 나죠? 아저씨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일천구백팔십년의 오월 나는 군인이었다."

침묵

남1, 여1을 쳐다보고 기꺼이 말해주겠다는 듯.

남1 일천구백팔십년의 오월 나는 군인이었다. 말하자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나는.

여1 거짓말.

남1 아직 말도 안 했다.

여1 하면 안 된다고요.

남1 내가 뭘 하러 거짓말을 해. 나는 군복을 든 채 애를 쫓았다. 시위대 앞에 섰던 사람이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왜소했다. 그리고 그 애는 뽕밭길도 하지 못해 나에게 금방 잡히고 말았다. (사이) 그 애는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너처럼 말이다.

여자애를 한 번 쳐다보고 무대를 응시한다.

남1 그러고 나는.

여1 머리를 때렸죠?

남1, 여1을 쳐다본다.

여1 머리를 딱 때리고 나서는요?

여1,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

남1 그전에 하던 것처럼 발길질도 하고 침도 뱉었다.

여1, 발길질하고 침 뱉는 시늉을 한다.

여1 그러곤요?

남1 무전이 왔다.

은신
김민수 작



여1, 무전을 받는 시늉을 한다.

남1 발도 명령이 떨어졌다. (사이) 명령을 받은 다른 전우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 대신 칼로 사람의 배를 찌르는 이도 있었고 군화발로 사람의 머리를 깨는 이도 있었다.

여1, 총 쏘는 시늉을 한다.

남1 그리고 나는.

여1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멍하니. 옆에서는 총소리 비명이 들려오고 매캐한 냄새가 나니.

남1 총을 내려놓았다. 골목으로 애를 끌고 갔다. 그리고 한 대 쥐어박으며 어서 도망가라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했다. (사이) 근데 총소리가 들려왔다. (사이) 다 죽었다.

침묵

남1 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변한 게 없다. 광주에는 이제 노래도 불리지 않는다.

여1, 상자를 열어보려 다가간다.

남1 뭐 하는 거야. (사이)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여1, 테이블에 놓여 있던 상자 뚜껑을 열어 총을 꺼내 든다.

여1, 총을 들고 침을 뱉는 시늉을 한다.

여1 야, 빨갱이년아.

군화발로 얼굴을 짓이기는 시늉을 한다.

여1 서울 올라간다고? 가수가 꿈이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사이) 왜 못 불러. 안 불러? 시작. 부르라고 이년아!

노랫소리 울려 퍼지고 곧이어 들려오는 총소리.

남1 뭐 하는 거야 지금.

여1 아저씨 따라 해요.

남1 미쳤구나. 정신병원 좀 다니더니 단단히 미쳤어. 노래나 불러.

여1 똑같은 아저씨.

남1 아씨발.

여1, 남1에게 다가가고

여1 아저씨 기억나죠.

남1 뭐가. 노래나 부르라고.(뒷걸음질 친다.)

여1 기억 안 나요?

남1 뭐가.

여1 제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남1 뭐라는 거야!

여1 노래도 못 부르게 목구멍에 대고 총을 쏘잖아요.

남1 ...

남1, 넘어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남1 여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죽이려고 해요.

여1 아저씨.

남1 나 안 그랬어.

여1 아저씨.

남1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 안 그랬다고.

여1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남1, 고개를 숙이고

남1 날 죽여.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알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여1, 총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총이 없다는 듯 손을 들고 남1에게 접근한다.

여1 아니 아저씨.

남1, 테이블에 놓인 총을 들고 여1을 향해 조준한다.

남1 손들어. 시발. 내가 안 그랬다고 했지. (사이) 손 안 들어? 쏜다? 손 들어.

여1 아저씨. 우리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남1 시발 손 들라고.

여1 아저씨 병원 못 나가겠다 또. 언제까지 그럴래.

남1, 여1을 향해 총을 쏜다.

남1 나 안 그랬어.

남1, 총을 다시 상자에 넣고 품는다.

암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 처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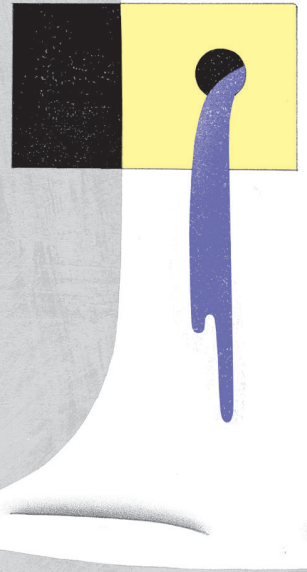
여1 안녕하세요. 아저씨. (사이) 상자를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남1 어허.

여1 상자를 건드리지 못하고 물러선다.

여1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사이) 기억날 텐데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자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i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문래예술공장 MAP
(Mullae Arts Plus)



다원예술, 전통기반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뷔 10년 미만의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MAP>이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2017년의 앞겨울을 장식한다. 1월에 이어 김지연 <투명한 음악>, 김보라 <해방공간: 약속의 음악>, 정세영 <내진, 극장>, 윤자영 <여름밤의 링크>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개별 문의
문의 02-2676-4333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 제휴협력실
-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 축제팀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팀
- 기타 문화행사 추천

www.sfac.or.kr

MON	TUE	WED
		1 ●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 ● 활력콘서트, 군기유적전시 ● 2017년도 하반기 시민청결혼식 신청자 모집(~2.19) ● 전시 <Art Beyond ART>(~2.28) ● 창작재음공방 상설체험 <BIG3>(~3.31) ● 기증유물특별전 <세계의 활-동북아시아>(~2.28) ● 연극 <베헤모스>(~4.2)
6 ● 2017 공연, 만나다 '동행' <구부러져라, 스폰>(~2.7)	7 ● 2017 시즌 프로그램 기자간담회 ● 전시 팀워크 <합리적인 블록버스터>(~2.14) ● 연극 <사이닝 시티>(~2.9)	8 ● 2017 공연, 만나다 '동행' <보이즈인더밴드>(~2.9)
13	14 ● 뮤지컬 <광염 소나타>(~2.26) ● 리처드 웅재 오닐 리사이틀 <BRITISH & ROMANTIC>	15 ● 2017년 With밤 모집 공고(~2.28) ● 동숭무대 20주년 릴레이공연 <버지니아 그레이의 초상>(~2.19) ● 동숭무대 20주년 릴레이공연 <시선>(~2.19)
20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2017>	21	22 ● 2017 살롱 드 마포 I <봄 마중>
27 ● 2017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청년예술가교사 전체 오리엔테이션	28 ● 2017 청년예술가교사 양성과정	

문화가 있는 날

THU	FRI	SAT	SUN
2 - 창작인형극 <파란 토끼 블루의 모험> (~2.4) - 강동아트센터 목요일예술무대 <볼쇼이 극장 스페셜 갈라> - 강동아트센터 목요일예술무대 <브라스 퍼포먼스 퍼니밴드>	3 - 김지연 <투명한 음악> (~2.4) - 유취늘샘 <통영가족의 시베리아 횡단기> 시사회 (~2.4)	4 - 서울예술교육센터 청소년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3.12) - 전유성과 함께하는 클래식 <제6회 겨울방학 팡팡 해설음악회>	5 전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9 공연 김보라 <해방공간: 약속의 음악> (~2.10)	10 - 연극 <뒷마루가 있는 집> (~2.26) - 연극 <소나기마차> (~2.26) - 연극 <신인류의 백분토론> (~2.26) - 국악·연극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2.26) - 국립남도국악원 브랜드 공연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 (~2.11) 2017 공연, 만나다 '동행'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11)	11 - 한마음살림장 (~2.12) - 강진안 공연 <설다-익숙하지 않는 날> (~2.12) - 국제 레지던스 <PILOT FISHES> 워크숍 (~2.12) - 서울예술교육센터 청소년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 - 국립발레단 <Back to the Future> (~2.12) - 국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의 밤-국립합창단 한국창작곡 만들기 프로젝트 XI>	12
16 아줄마 퍼포먼스 <엄마의 또다른 이름, 아줄마>	17 - 임진호 공연 <구제 Salvation> (~2.18) - 공연 정세영 <내진, 극장> (~2.19) - 전시 <2016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간지원사업 [쉐어프로젝트: 실험실]> (~4.2) 2017년도 잠실창작스튜디오 제9기 입주작가 정기 공모 설명회	18 - 댄스필름 상영회 - 타임앤스페이스퍼포먼스 주최 <덕의 상실> - 봄방학특집 클래식 <악기야 놀자> (~2.19)	19 NT Live 시리즈 <제인 에어>
23 국립민속국악원 브랜드창극 <나운규, 아리랑> (~2.25)	24 - 국제 레지던스 <PILOT FISHES> 쇼케이스 - 국립극단 <미디어> (~4.2) - NT Live 시리즈 <제인 에어> (~2.25)	25 - 한마음살림장 (~2.26) - 토요일은 청이 좋아 - 공연 윤자영 <여름밤의 링크> (~2.26)	26

01

WED

연극 <베베모스>

KBS 2TV 드라마 스페셜 <괴물>이 연극 무대에 오른다. 돈과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다르지 않은 인간의 추악한 속물근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씁쓸한 질문을 던진다. 김태형 연출과 정민아 작가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일시 2월 1일(수)~4월 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후 3·6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caci.or.kr 02-440-0500

02

THU

창작인형극 <파란 토끼 물루의 모험>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겨울방학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창작인형극이다. 상상 속 동화나라에 ‘꿈을 모아 구슬’을 지키는 꿈별씨가 심술쟁이 깜깜마녀에게 잡혀가면서 파란토끼 물루가 할아버지와 함께 꿈별씨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일시 2월 2일(목)~4일(토) 목~금 오후 4시, 토 오후 2·4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2

03

FRI

김지연 <투명한 음악>

작가 김지연은 소리와 음악을 구분 짓는 도식적 구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공연장에서 작동해온 청취 행위의 메커니즘에 전복을 시도한다. 이를 동안 진행되는 밤과 낮의 각 공연에서 작가는 공연장 창문 밖 풍경에 조응하는 ‘오가닉 플레이(Organic Playing)’를 선보인다.

일시 2월 3일(금)~4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676-4333

시사회 <통영가족의 시베리아 횡단기>

서교예술실험센터 7월 최초예술지원 선정자 유최철 샘의 시베리아 횡단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회다.

일시 2월 3일(금) 오후 5시~7시, 4일(토) 오후 1시~3시, 오후 5시~7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7

04

SAT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의 거인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으로 감동의 선율을 선사한다. 라흐마니노프가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교향곡 1번을 발표했지만 실패한 후 은둔생활을 하는데 프랑스 유학 도중 귀국한 정신의학자 달 박사의 도움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하는 내용이다.

일시 2월 4일(토)~3월 1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2·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www.hjculture.com 02-588-7708

06

MON

**공연 <구부러져라, 스펀>**

코미디 음악극 <구부러져라, 스펀>이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무대에 오른다. 경상남도 김해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카페 ‘음악다방 에스퍼’로 몰려든 초능력자들과 초능력자를 찾아여행 중인 진달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

일시 2월 6일(월) 오후 8시, 7일(화) 오후 3시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입장료 전석 1만 원

문의 02-766-7667

07

TUE

전시 <팀워크-합리적인 블록버스터>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최초예술지원’ 9월 선정 김이송의 캔버스 작업을 통한 전시 및 예술가들과의 토론이 열린다.

일시 2월 7일(화)~14일(화) 오후 6시~9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7

연극 <샤이닝 시티>

아일랜드 출신 작가 코너 맥퍼슨의 작품을 각색한 <샤이닝 시티>가 동송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현대인의 외로움, 자기 고백을 통해 바라보는 인간 군상을 연기한다.

일시 2월 7일(화)~9일(목) 화~수 오후 8시, 목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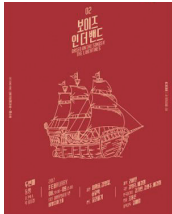
장소 동송아트센터 동송소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문의 arko.or.kr 02-760-4668

08

WED



공연 <보이즈 인 더 밴드>

해외 뮤지션의 음악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 <보이즈 인 더 밴드>. 1997년 런던에서 결성된 4인조 록밴드 '리버티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픽션으로 악명 높은 록스타 대니와 그의 친구 애쉬간의 해프닝을 다뤘다.

일시 2월 8일(수) 오후 8시, 9일(목) 오후 3시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입장료 전석 1만 원
문의 02-766-7667

09

THU

김보라 <해방공간: 약속의 음악>

'구름'에서 출발해 가무악으로 이어지는 작품은 한국 음악의 특수성을 해체시키고, 가무악에 담긴 한국음악의 전방위 형태를 담고 있다.

일시 2월 9일(목)~10일(금)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2676-433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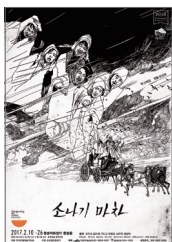
FRI



연극 <툃마루가 있는 집>

극단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연극 <툃마루가 있는 집>이 대학로예술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1970~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주인공과 그 시대 중장년들이 각자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을 한국 현대사의 상흔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작품이다.

일시 2월 10일(금)~26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koreapac.kr 070-7869-2089



연극 <소나기마차>

2015년 창작산실 대본공모부터 오랜 기간의 심사와 시범 공연을 거쳐 무대에 오르는 <소나기마차>가 준비 기간만큼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일시 2월 10일(금)~26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koreapac.kr 02-3668-0007



연극 <신인류의 백분토론>

기존의 공연과는 색다른 형식으로 호평을 받는 극단 '공연배달서비스가 간다'의 연극.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쪽이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치, 사회, 종교, 예술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하는 리얼한 연출을 선보인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신작 선정작.

일시 2월 10일(금)~26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6시, 일 오후 2·5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koreapac.kr 02-744-4331

국악·연극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국악뮤지컬집단 타루는 판소리와 다양한 소리를 활용해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했던 12세기 햄릿의 머릿속 생각들을 무대 위로 가져온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4명의 햄릿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충돌한다. 2012년 두산아트센터 두산 아트랩 워크숍, 2013년 서울연극센터 쇼케이스를 거쳐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재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일시 2월 10일(금)~2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taroo.com 02-6481-1213

공연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

한국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과 그의 넷째 아들 미산 허형 사이에 얹힌 갈등을 진도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을 통해 풀어간다. 진도복춤,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씻김굿, 남도돌노래, 남도잡가 등 진도민속예술의 악가무 전체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2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gugak.go.kr 02-580-3300

11

SAT



공연 국립발레단 <Back to the Future>

시즌 첫 공연 <Back to the Future>가 국립극장 달오름 무대에 오른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국립발레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KNB Movements Series'에서 소개된 우수 작품이다.

일시 2월 11일(토)~2월 12일(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2만 원, S석 1만 원
문의 korean-national-ballet.kr 02-587-6181

12

SUN

전시 <무진기행>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30~40대 한국화 작가 14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상향'을 재해석한 금호미술관의 기획 전시. 전통적으로 산수화에 투영된 '이상향'을 오늘날 작가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일시 ~2월 1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장소 금호미술관
입장료 성인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kumhomuseum.com 02-720-5114



공연 <인 더 하이츠>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브로드웨이 뮤지컬 <인 더 하이츠>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힙합 뮤지컬을 흥행시킨 린 마누엘 미란다의 작품으로 랩, 힙합, 스트리트댄스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뒤흔치게 한다.

일시 ~2월 12일(일) 화 오후 8시, 수 오후 3시 30분·8시, 목~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13만 원, OP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sac.or.kr 02-1588-5212

14

TUE



뮤지컬 <광염 소나타>

김동인의 소설 '광염 소나타'에서 모티프를 얻어 스릴러 뮤지컬이 탄생했다. 열아홉 나이에 천재라는 칭송을 받으며 데뷔한 작곡가 J가 데뷔작을 뛰어넘는 곡을 쓰기 위해 광기 어린 집착으로 죽음의 소나타가 시작된다.

일시 2월 14일(화)~26일(일) 화 오후 8시, 수 오후 4·8시, 목~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7시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koreapac.kr 02-548-0598

15

WED



동송무대 20주년 릴레이공연

<버지니아 그레이의 초상>

1998년 창단한 극단 동송무대가 20주년을 맞아 릴레이공연을 선보인다. 한 신참 기자가 한때 유명세를 떨쳤던 가수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 망령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그렸다.

일시 2월 15일(수)~1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6시, 일 오후 3시
장소 동송무대 소극장
관람료 일반 2만 원, 중고생 1만 원
문의 cafe.naver.com/dsstage 010-3711-7818

16

THU

공연 <아줌마 퍼포먼스-엄마의 또다른 이름, 아줌마>

서교예술실험센터 <소액다(多)컴> 선정팀 아줌마 퍼포먼스의 엄마, 아줌마를 키워드로 한 공연 및 아트 퍼포먼스.

일시 2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7

17

FRI

전시 [쉐어프로젝트: 실험실]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이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전시, 공연 쇼케이스, 워크숍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된다.

일시 2월 17일(금)~4월 2일(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및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9

정세영 <내진. 극장>

극장에서 '환영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전제하에, 과거의 드라마틱한 방식과 구분되는 현대식 극장의 방식으로 '환영성'을 환기시켜 극장의 작동 방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일시 2월 17일(금)~19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유료(미정)
문의 02-2676-4333

임진호 <구제 Salvation>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닷 (DOT)' 선정자 공연.

일시 2월 17일(금)~18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304-0239

18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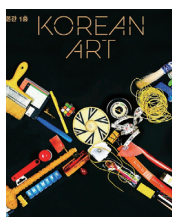
봄방학특집 클래식 <악기야 놀자>

엄마, 아빠와 함께 클래식 악기를 직접 체험하고 감상하는 가족음악회 <악기야 놀자>가 국립극장 별오름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1부는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원리와 연주 방법을, 2부는 전문 연주자의 지도로 악기를 체험한다. 3부에서는 음악을 쉬운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일시 2월 18일(토) 오전 11시(현악), 오후 2시(목관), 19일(일) 오후 2시(현악)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547-9851

19

SUN



SeMA Gold <X: 1990년대 한국미술>

1987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10년간의 한국미술을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 90년대를 화두로 삼아 X세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한국미술의 미학적, 문화사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일시 ~2월 19일(일) 오전 10시~오후 8시 *월요일 휴관, 토·일·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 뮤지엄나이트 운영(오후 10시까지 연장 개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입장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02-2124-8938



NT Live 시리즈 <제인 에어>

영국의 여류 작가 샐러 브론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제인 에어>가 실황 중계라는 신선한 방식으로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일시 2월 19일(일), 24일(금), 25일(토) 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20

MON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2017>

런던 심포니(LSO)가 수석 객원 지휘자 다니엘 하딩과 통산 10번째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런던 현지와 동일한 캐스팅으로 바비컨센터를 서울로 옮겨놓은 듯한 최상의 하모니를 기대해도 좋다.

일시 2월 20일(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33만 원, S석 19만 원, A석 12만 원, B석 7만 원
문의 02-599-5743

21

TUE



NT Live 시리즈 <프랑켄슈타인>

영국 국립극장 최고 흥행작 <프랑켄슈타인>이 2년 만에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온다. 영국 드라마 <셜록> 주연의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의 조니 리 밀러가 공동 주연을 맡아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과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을 연기한다.

일시 2월 21일(화)~26일(일) 평일 오후 8시, 일 오후 3시
 *상영일은 21일(화), 22(수), 23(목), 26일(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22

WED

2017 살롱 드 마포 I <봄 마중>

'살롱 드 마포'는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다. 특히 주부 및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마포아트센터의 하우스 프로그램.

일시 2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 3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mapoartcenter.or.kr 02-3274-8600

23

THU

국립민속국악원 브랜드창극 <나운규,아리랑>

영화인 나운규의 삶과 영화 <아리랑>, 민족 노래 '아리랑'으로 엮은 우리 시대 예술가의 이야기. 2015년 '제1회 창극 소재 공모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완성한 국립민속국악원의 야심작이다.

일시 2월 23일(목)~25일(토) 목·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gugak.go.kr 02-580-3300

24

FRI

국립극단 <미디어>

남편 이아손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는 여자 미디어는 복수를 결심한다. 남성이 우월하다고 믿던 시대에 등장한 에우리피데스의 <미디어>는 '분노'와 '공감'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진다.

일시 2월 24일(금)~4월 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3월 22일(수)·29일(수) 오후 3시 1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25

SAT

윤자영 <여름밤의 링크>

가벼우며 동시에 잔혹한 판타지.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는 순간, 살이 베일 것 같은 물리적인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얼음 위의 죽어버린 낭만은 어떻게 극장의 환영이 될 수 있을까?

일시 2월 25일(토)~26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전석 1만원

문의 02-2676-4333

26

SUN



전시 <오늘의 웅기: 이현배>

우리 시대에 몇 안 남은 웅기장이 이현배의 웅기 전시. 26년간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제작된 웅기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시 ~2월 26일(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02-2124-8935



전시 <위대한 낙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작가 7명을 엄선해 국내 최초로 기획한 세계적 그래피티 전시. 거리에서 시작해 이제는 팝아트를 이을 현대미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그라피티가 관객들을 만난다.

일시 ~2월 2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층

입장료 일반 1만 원, 어린이·초·중·고등학생 5천 원

문의 sac.or.kr 02-580-1300



전시 <때때 색깔, 우리 삶에 스민 색깔>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시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1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인의 삶에 투영된 다채로운 색의 상징과 색감을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선대원군 초상' '흑초의' '일월 오봉도' '색동두루마기' 등의 전통 생활품과 '오색광울' '백자 달항아리' 등의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350여 점의 자료와 영상물이 전시된다.

일시 ~2월 26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1

입장료 무료

문의 www.nfm.go.kr 02-3704-3113

28

TUE



전시 <서양미술사 아틀리에 시즌2>

아트 에듀케이터의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충무아트센터 미술 교육프로그램 전시. 원시부터 20세기 미술사의 대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계된 미술 실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일시 ~2월 28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예그린 스페이스

입장료 1만 원

문의 caci.or.kr 02-2230-6638



기증유물특별전 <세계의 활-동북아시아>展

우리나라 고유의 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며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온 황학정 국궁 전시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시를 시작한다. <세계의 활> 그 첫 번째 전시는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활과 화살을 선보인다.

일시 ~2월 28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황학정 국궁전시관

입장료 2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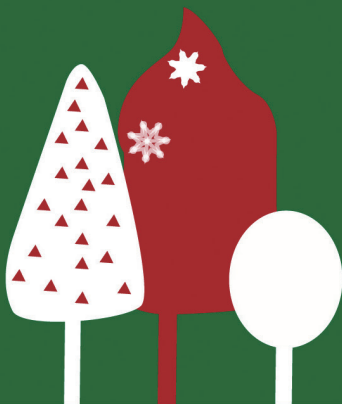
문의 jfac.or.kr 02-722-1600

201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창작채움공방
인기프로그램

BIG 3



일 시 : 2017.01.03~2017.03.31

대 상 : 방문객 누구나

장 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참가비 : 무료

문 의 : 02-871-7400



<이용 가능 프로그램>



[마이리틀인형극장] [상상의 나라 액자만들기] [음악대장 랄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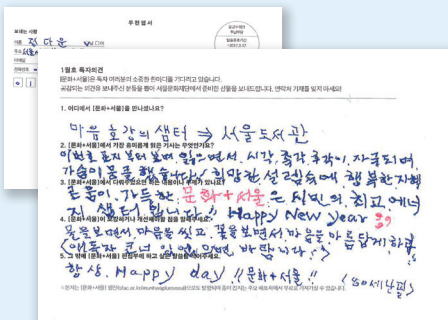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마음 호강의 샹터 ☺ 서울도서관
2. 이번 호 표지부터 보고 읽으면서 시각, 촉각, 후각이 자극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희망찬 실렘 속에 행복한 지혜로움이 가득한 [문화+서울]은 시민의 최고 에너지 샹터입니다. Happy New Year!
4.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애독자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항상 Happy Day!

정다운 님

편집 후기

메스꺼운 연기에 놀라 6층에서 단숨에 1층까지 탈출했다. 불난 게 아닌 걸 알고 저녁 먹으러 gogo~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유난히 후기가 떠오르지 않는 건 담배 탓입니다. 금연 20일째!
이준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유난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 내느라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편집에 참여했다기보다 한 명의 독자로서 가장 먼저 [문화+서울]을 구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임동민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눈송이마저 숨을 죽여 내리고
내 발소리 메아리 되어 돌아오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혜린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어떻게 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남자는 더 친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먹었습니다. 4인용 식탁 만세!"

김한솔, 신호진, 이승주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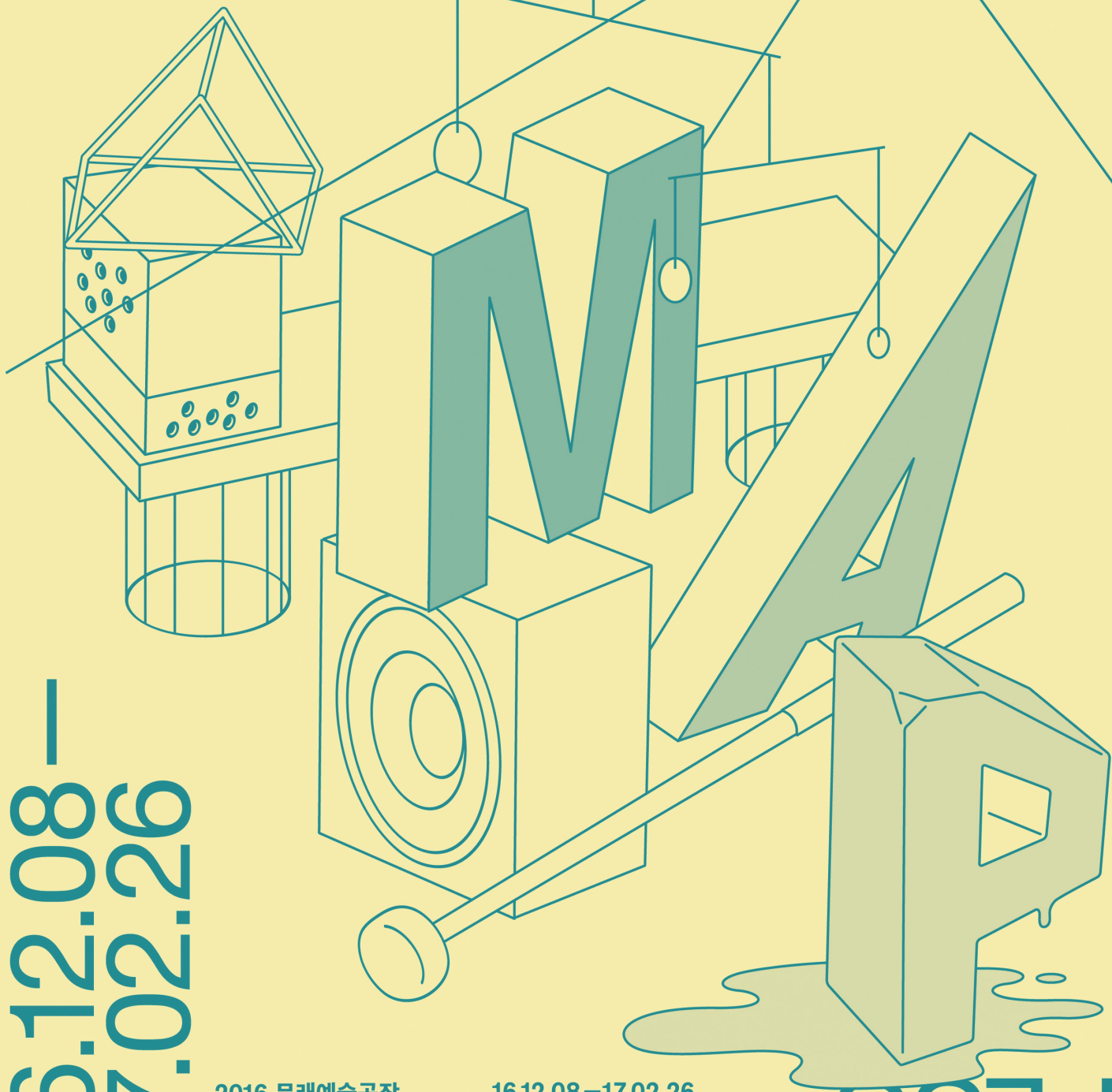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터, 동송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강아트갤러리, 한국공연 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MULLAE

강서경, 김보라, 김소라(노리꽃), 김지연,
안효주, 연희집단:갱, 윤자영, 전유진, 정세영

ARTS



16.12.08 — 17.02.26

2016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2016

16.12.08 — 17.02.26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스튜디오M30

PLUS



테마 토크
 '청년' 혹은 '예술가'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
 시인 고은

진실 혹은 대담
 기획토론 '문화담론 순환선'

쟁점 1
 국공립미술관의 '블록버스터 전시' 논란

쟁점 2
 송인서적 부도를 통해 본 출판계 현실

화제
 2016년 달군 서울문화재단 10대 키워드

공간
 경희대 앞 '문화공간 8번가'

2월의 서울문화매뉴얼